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6-997 1982년 12월3일(금) & 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December 3 &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DEC 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교민업소 강도 빈번

최근 2주간 이틀에 한건꼴

상점주의 주택까지 침입

피해자들 보험 필요성 강조

불황에 시달린 해에다 년말이 다가오자 특히 한인을 상대로 한 강도·절도 건수가 늘고 있다.

메트로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건이상 발생하는 절도및 강도사건중 한인들의 피해 건수는 거의 이틀에 1건꼴로 발생한다. 지난 21일부터 12월2일까지 13일간 6건의 한인상점강도및 절도와 1건의 한인가택침입절도가 경찰에 보고 됐다.

상점강도의 경우 손님이 뜸한 밤 시간에 주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캐쉬대 뒤로 와서 캐쉬·리지스터에 들어있는 현금을 몽땅 가져가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뚜렷한 저항을 보이지 않는 한, 인명피해는 거의 입히지 않지만 대담한 언동을 쓰며 범인은 대부분 백인계 남자가 많다.

가택침입 절도의 경우는 주로 상점하는 사람의 집을 노려 집에든 현금과 패물을 노려 침대및 옷장, 찬장등을 샅샅이 뒤지며 대개 주인의 외출시간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이다.

전 가족이 교회에 간 사이에 집을 털린 H씨의 경우 도둑은 지하실의 작은 문을 떼내고 들어와 집을 샅샅이 뒤져 패물과 현금 약 2,500달러어치를 훔쳐 지하실방문에 쳐진 스크린을 부수고 나갔다.

그날 H씨는 전가족이 교회로 가기 위해 아침 11시경 집을 나가 하오 8시에 귀가 했는데 범인은 6년간 이집에 살아온 H씨가족이 일요일이면 모두 교회에 가고 집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 집에 전기제품등도 있었으나 주로 현금을 찾아 침대, 옷장의 옷속, 부엌찬장등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보였다.

H씨는 "작년에 미시사가 지역에서 주로 상점하는 한국사람의 집이 많이 도둑을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동쪽지역에서는 우리집이 처음인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보험을 철저히 들어둔 것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로부터 "자기 구역에서만도 가택침입 절도가 하루에도 몇건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특히 비지니스하는 사람의 집의 현금을 노리는 범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가게가 문을 열은 시간에 들어와 돈을 뺏아가는 경우이지만 밤새 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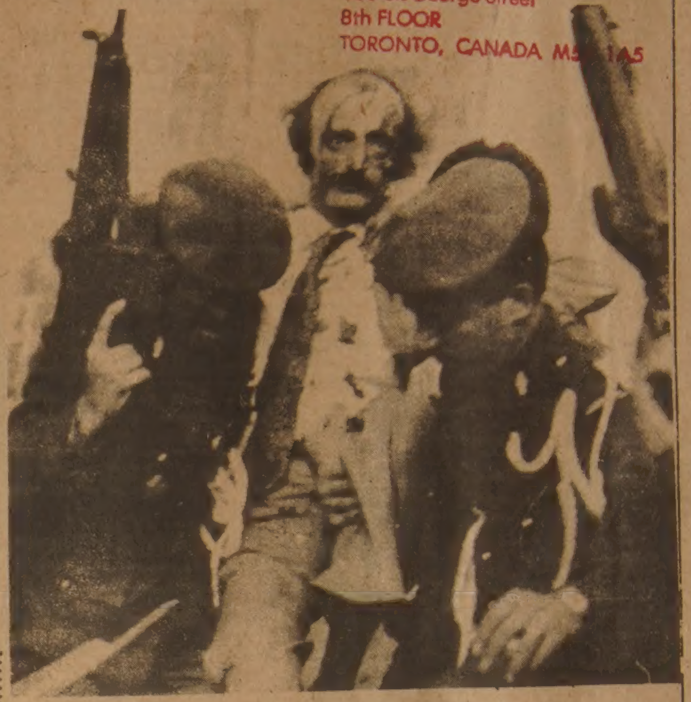
메트로 동북쪽 C 버라이어티의 주인 K씨의 경우를 보면 지난 11월25일밤과 26일 아침사이 앞문의 유리를 깨고 들어와 도둑은 마침 연말을 맞아 담배회사로 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아 지하실에 쌓아둔 담배상자와 크리스마스선물, 선글라스 7~80개를 진열장 채로 들고가 약 7천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전번 상점주로부터 보험까지 인계받아 상점도난보상이 최고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약6천달러를 고스란히 잃게 됐다.

K씨는 "상점하는 한국사람들이 바쁘다보니 보험조건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외에 동쪽 Q 버라이어티의 C씨, D 마켓의 C씨, 서북쪽 S 버라이어티의 H씨, 다운타운 남쪽 J 기프트·앤드·버라이어티의 C씨등은 대개 손님이 한적한 밤 시간에 칼을든 낯선 백인 범인에 캐쉬대에 있는 현금 전부를 빼앗긴 경우이다. 범인들은 인명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피울담배가 떨어졌다며 담배를 집어가거나 돈 넣어갈 봉투까지 달라는등 여유가 만만하며 "죽고 싶느냐"는 협박조의 말을 서슴치 않는다.

메트로 경찰의 리차드·롤렛경위는 2일 사전이 발생하기 전 보험을 철저히 들고,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두는등 대비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일단 사전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무분별한 저항을 되도록 피할 것이며, 범인이 나간 뒤에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되도록 현장을 사건 당시 그대로 보존해 둘 것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회교지도자 구사일생 .... 1일 서베이루트의 중심가에 주차해 놓은 차속에서 폭탄이 터져 6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다 중상을 입은 레바논의 모스템지도자 바리드·줌부라트(Walid Jumblat)씨가 레바논경찰의 부축을 받고 있다.

社 告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12월10일 접수마감

모국의 독립기념관 기금모집에 호응, 본 토론토·한국일보가 지난 9월부터 캐나다 교민상대로 모금한 금액은 11월말 현재 20명의 $2,610에 달했다.

이중 $2,120를 10월15일 서울본사로 송금,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의뢰했다.(10월29일자 서울판보도)

그후 접수된 $490는 12월10일 마감날까지 입금되는 금액과 함께 서울로 송금할 예정이다.

기금 접수는 12월10일까지이다.

지난 3개월간에 걸쳐 본지를 통해 독립기념관 기금희사자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독립기념관 모금실태

원××	$100	박문배	$100
박진근	$100	박 용	$100
김승택	$100	최원보	$100
박대인	$200	이상묵	$50
최동용	$1000	김성종	$50
최성태	$50	고종옥	$200
이상온	$20	박창서	$10
배용빈	$100	이범창	$60
김충헌	$50	최인작	$100
박형배	$100	김옥번	$20

총 20명 $2,610

— 토론토 한국일보사 —

크루즈·미사일 발사실험

미국, 캐나다땅 희망

(워싱톤) 미국이 이번 겨울에 캐나다에서 크루즈·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려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실무자들이 이를 위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곳의 캐나다 대사관 관리들도 캐다다·미국간의 미사일 실험협정 작업이 실무자급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 협정이 캐나다의 질레·라몽따뉴 국방장관과 미국의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 사이에 정식으로 서명되면 미국은 캐나다에 발사실험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게 된다고 대사관측이 밝혔다.

미 국방성이 미사일발사실험 후보지로서 사스카추완주의 프림로스·레이크·에어·웨폰스·레인지(Primrose Lake Air Weapons Range)와 알버타주의 콜드·레이크(Cold Lake)를 지목하고 있다.

국방성의 발사실험 계획에 따르면 뉴욕의 그리피스(Griffis)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의 개조형이 발진, 그레이트·레이크스(Great Lakes)를 지나 다코다(Dakoda) 황무지의 3,280미터 상공에서 6.5미터 크기의 앞부분에 상어이빨이 그려진 크루즈·미사일이 발사된다.

미군사전력가들이 캐나다를 크루즈·미사일의 발사실험지역으로 원하는 이유는 기후와 지역조건이 소련의 일부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중거리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될 크루즈·미사일은 공중, 육지, 해상 어디에서나 발사될 수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11 18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청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 9387~8

미 대통령

단임제 추진

(워싱턴) 3명의 전직각료와 1명의 저명한 교육자등 4명은 미국대통령의 6년 단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초당파적인 위원회는 그리핀·벨 전법무장관, 윌리엄·사이먼 전재무장관, 사이프러스·밴스 전국무장관및 밀튼·아이젠하워 전존홉킨스대학 총장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단임제안은 거의 150차례나 의회에 제안된 바 있다.

뇌물공세 안되자 폭행

북한축구팀 국제경기 출전금지

북한 축구선수들에게 폭행을 당한 태국의 지·비짓 주심은 경기도중에도 2번씩이나 죽이겠다는 공갈을 받았고 경기전에는 북한팀이 뇌물공세를 벌였었다고 태국의 영자지「The Bangkok World」가 보도했다.

2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북한축구선수들의 난동사건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다는 아시안게임 축구준결승전에서 북한이 쿠웨이트에 3:2로 패하자 선수와 임원들이 경기주심 비짓을 폭행한데서 비롯됐다.

이 신문은 타이축구협회 피싯·나르템패니부회장의 말을 인용, 북한측은 경기전에도 주심에게 뇌물공작을 벌였었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12월말 아시아청소년 축구대회도 북한이 참가하면 개최권을 취소하겠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시아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북한을 모든 국제경기에서 2년 출전금치시키라고 각 협회에 통고했다.

한국 금18개로 3위무난

북한은 인도젖히고 4위

(뉴델리·인도 1일=한국신문공동취재반) 제9회 아시안게임에 출전중인 한국은 대회 막바지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함으로서 당초목표 3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사격에서 2개의 금메달을 얻어 인도를 젖히고 4위로 올라섰다.

한국팀은 30일 남자테니스복식(김천호-이우룡)에서 금메달을 얻었으나 여자단식결승에서는 김수옥선수가 일본의 에스끄·이노우에에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의 스프린터(육상의 단거리 주자)장재순은 남자 200m결승에서 20초88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얻었다.

한편 한국팀은 복싱 12개 종목에서 9개체급이결승에 진출했고, 레스링등에 추가메달이 기다리고 있어 3위 고수는 무난하다.

1~5위까지 메달순위는 다음과 같다.

	금	은	동
중공	54	45	33
일본	53	48	36
한국	18	23	32
북한	11	17	15
인도	11	13	16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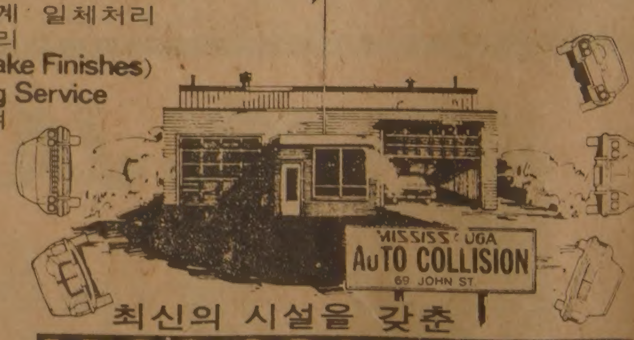
은하 보석
타이아몬드·순금
관광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신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투자이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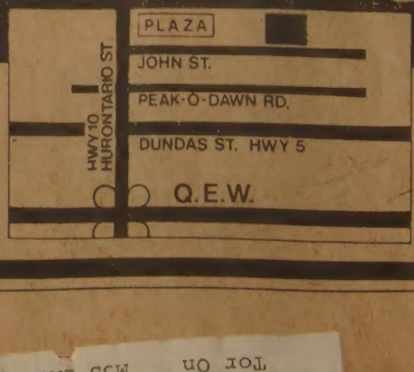
□ 자 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산업(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 투자금액 :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등에 의해 최대한의 자산.(동산및 부동산 포함)
□ 투자이민 장소 : 캐나다 퀘벡주.
□ 언 어 : 불어. 이민면담시(1983년11월 예정)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투자이민 응모 희망기한 만료 : 1982년12월10일(금)까지.
□ 제출서류 : 희망자 성명및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공장 포함) 증빙서류.
□ 사전면담및 현지방문 : 1983년 1 월 초순.(단, 투자이민 가능성을 사전타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사전심사에 통과된 희망자는 1983년 1 월15일부터 정식수속 가능하며, 본사는 이민투자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장조사및 연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도와줌.

(주)현영일 국제경영Consultant
(416)444-9341 (8:00 p.m.-10:00 p.m.)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사건의 발단은 부산해운대 호텔에서 벌어진다.
남자에 굶주린 유한부인 박문자여사와 건장한 낯선 사나이(모세)의 즉흥적 정사가 꼬리를 물고, 토막살인사건에 까지 비약하고 만다.
이름도 모를 사나이는 그후도 가끔 무서운 협박으로 그녀의 몸을 빼앗고, 거액을 뜯어내고— 하룻밤 저지른 잘못이 꼬리를 물고 파롭히자, 박문자여사는 오빠 두봉과 짜고 상대(모세)를 독살! 토막살인 내어 전국 각지로 분산 우송한 것이 탈로나 경찰에 비상이 걸리고, 냄새를 맡은 마형

「제5의 사나이」
이제까지의 줄거리
외도가 살인 몰고와

사가 그녀를 의심, 접근하여 유도심문한다.
피살자 모세의 신원을 파악한 수사당국은 그의 고향마을 노모의 주변으로 수사망을 펼친다.

◆

무대는 국제도시 홍콩으로 비약!
마피아와 맞먹는 국제적 중국인 범죄조직단이 마수를 한국땅에 뻗쳐, 그들이 한국땅에서 도난당한 마약(히로인) 6Kg을 되찾기 위해 전문킬러(살인청부업자)를 파한, 미스테리와 사스펜스가 줄잇는다.

미 동양계 중류이상생활
전인구의 1.5%…뉴스위크지 보도

한국커뮤니티를 비롯해 동양계 민족은 미국에서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최근호(12월6일자)에서 소개했다.
「뉴스위크」지는 지난10년동안에 동양계와 태평양연안국가로부터의 이민이 무려 120%나 증가했으며, 미국내 여러 종류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과 사회진출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80년 인구센서스를 인용한 통계에서 미국내 동양계 소수민족은 약 35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숫자는 미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양계의 이민증가율 120%는 백인의 6.4%, 흑인의 17.4%, 그리고 남미계의 66.8%에 비하여 놀라운 현상이며, 특히 생활수준면에서도 동양계 가정은 중산층이 연평균 2만2천75달러로 백인가정의 평균 2만840달러에 비하여 높다고 지적했다.
동양계는 교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3분의1이 대학졸업자이며, 이 점도 백인들의 17.5%에 비하여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동양계 학생은 현재 하바드대학에서 8%, 버클리대학에서 21%에 이른다고 「뉴스위크」지는 보도했다.
이같은 동양계의 성장기반은 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긍지의 신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성과 자녀에 대한 희생등이 결과적으로 이민생활의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그 예로 뉴욕에서 청과상을 하고 있는 한인교포 이성수(25)씨의 경우를 언급하고, 자랑스러운 한인이민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미·이씨도 소개했다.
이번 12월6일자 발간의 「뉴스위크」지는 이번 동양계 특집에서 본보 주관의 82년도 코리언퍼레이드 컬러사진을 머리부문으로 장식하고, 『미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괄목한 업적을 이룩하는 민족의 잔치』라고 칭찬했다.

◆미국내 동양계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고 평가한 「뉴스위크」지가 코리아타운번영회 주최, 한국일보 LA지사 주관의 코리언퍼레이드 사진을 머리부문에 소개하고 있다.

동양화개인전
한인회관기금마련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4일(토) 상오까지 Wayside화랑(9185 Yonge St.)에서 열리고 있는 운파·이정복 동양화개인전의 수익금은 토론토한인회관 이전기금에 회사한다.
30여점 전시작품의 구입희망자중 대금 일시불이 불능한 구매자에게는 분납제도 가능하다 한다.
교통편은 핀치서브웨이에서 시외버스 "C"를 이용하면 된다.
연락처: 886—1667

◆바로 잡음◆

2일자 1면 「한인회장인준」 관계기사중 「77년 8월 … 파도운영위원장이 주도 표결방법을」한 부분에 교정상의 실수로 다음 부분 빠졌읍니다.
「파도운영위원장 김문량씨 대신 박학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 표결방법을 박수로 하여 인준을 마치었다」로 고칩니다.

메이플립스 계속 패배
뉴저지에게 7: 3, 종합19위

바닥을 헤매는 토론토·메이플립스는 작년도 NHL 최하위(21위)인 뉴저지데빌스에게도 또 7:3으로 패해 어쩌면 16팀이나 진출하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못할지도 모른다.
뉴저지·바인아레아에서 열린 30일경기에서 메이플립스는 제2피리어드 초반까지 2:2로 팽팽한 대전을 벌였으나 중반에 연속3골을 허용한후 무너져 내렸다. 이로써 토론토는 작년 1월3일이후 어웨이 게임에서는 한번도 못이겼고, 현재 홈·어웨이통산 5연속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토론토는 현재 4승13패5무로 노리스조 4위이나 통산전적은 19위로 밑에서 3번째이다.

타이레놀
용의자 체포

(LA—AP)시카고 타이레놀 집단중독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오던 35세의 기계공이 30일 LA에서 체포되어 보석금책정없이 파키센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케빈·존·매스터슨이라고 알려진 이 용의자는 시카고 타이레놀사건 전담수사반이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풀어줄 혐의자로 쫓아오던 인물이다.
매스터슨은 웨스트 LA지역에서 이미 일리노이주가 발부한 마리화나소지혐의 영장으로 체포되었다.

金聖鍾 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2>

출발 ③

욕실을 나온 나는 허리에 타월을 두른채 식당으로 갔다.
웜은 그의 와이셔츠만 걸친채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헐렁한셔츠 밑으로 쭉 빠진 두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탁자에 앉아 코피를 마셨다.
『이러다간 병원은 닫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그녀가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는 그녀가 구워낸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빙그레웃었다. 그는 치과의사였다. 그가 경영하는 치과병원은 제일번화가인 침사초이(尖沙咀)에 자리잡고 있었다. 손님이 떨어지지 않아 그는 세명의 간호원외에 조수까지 두고있었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고 성의껏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출근하는 시간이 사뭇 늦어지고 있었다. 웜과 잠자리를 같이한 다음 날이면 그는 으레 출근이 늦어지곤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웜과 새워 향연을 베풀다보니 자연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웜은 중국인과 영국인의 튀기였다. 어머니쪽이 중국인이었는데 아버지와는 일찍 헤어지고 지금은 두 모녀만이 단촐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웜은 스튜어디스였다. 황이 그녀를 알기는 두달전이었다. 두 달전 그녀는 오른쪽 볼이 잔뜩 부어가지고 그의 병원을 찾아왔었다. 입을 벌리게하고 들여다보니 사랑니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뽑아주고 치료해주는 동안 그들은 자연히 서로 호감을 갖게되었고 그것은 어느새 연정으로 발전했다. 솔직히 말해 그가 먼저 그녀에게 반했다고 보는 편이 옳았다.
그녀는 푸른눈에 흑발이었다. 코는 높이 일어서 있었고 입술은 조금 두터워 보였다. 피부는 조금 가무잡잡한 편이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그녀를 대하는 순간 빨려들어가는 것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만큼 그녀에게는 강렬한 매력이 있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만큼 그녀는 지성도 갖추고 있었다. 키도 늘씬해서 169센티였다.
그는 옷을 입고 웜을 껴안았다. 와이셔츠자락을 걷어올리고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정말 근사해. 백만불짜리야.』
『먼저 가세요. 전 한숨 더 자고나서 가겠어요.』
『열쇠는 경비한테 맡겨둬.』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나서 아파트를 나왔다.
그의 아파트는 숲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거지로는 나무랄데가 없이 좋았다. 그곳은 상류층만이 살고있는 호화아파트로서 그가 살고있는 아파트만도 60평이 넘었다. 그 넓은 아파트에서 그는 혼자살고있었다. 멀지않아 웜을 맞아들이면 자신의 아파트도 지금처럼 적적하지 않고 가득찬 기분이 들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언제 프러포즈할까.
폴크스바겐에 올라 엔진을 걸면서 위를 쳐다보니 웜이 베란다에서 손을 흔드는 것이보였다. 그는 마주 손을 흔들어준다음 아파트단지를 천천히 빠져나왔다.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속력을 내어 달린다면 5분이면 걸리지 않지만 차도가 복잡해서 속력을 낼수가 없었다.

스튜어디스 웡을 아파트에 남긴 그는…

朴 男 그림

인터뷰 〈상공안협회 조병역 회장〉

"상협은 교민경제의 주축"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조회장

"어떻게하면 코너·스토어에서 벗어나 기업인다운 기업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많은 한인 비지네스맨들의 오랜 관심거리이지요. 상공인협회는 이미 기초를 닦은 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회원 서로가 기업가로서의 성장을 촉진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지난 10월16일 탄생한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의 초대회장 조병역씨의 말이다.
조회장은 "한인 비지네스맨들 중에는 수년간 코너·스토어에서 기반을 잡은 뒤 개척업종에 손을 댔다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실패의 이유는 기업정보에 어둡고 경영에 경험이 적고, 자금이 딸리는 등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수 있는 상공인협회같은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기대회 당시 28명으로 출발한 상공인협회는 한달반만인 29일 현재 회원수가 45명으로 늘었다. 회원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컨비니언트·스토어가 아닌 업체를 가진 기업인으로 실업인협회 회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회원이 된다.
"상공인협회 회원이 되면 목전의 작은 이익보다는 눈앞에 안보이는 많은 도움이 있게 될 것이며, 특히 기업인다운 기업인에는 꼭 필요한 소시얼·라이프를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코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된다"고 말하는 조회장은 앞으로 5~10년뒤에는 아마도 상공인협회가 교민사회의 경제적 힘의 주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초대회장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해 조회장은 우선

설립당시의 잡음 일축
코너·스토어 탈피위한 시도

단체로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원상호간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1)회원방문을 계획, 이미 회원 비지네스탐방이 시작됐고, (2) 공제조합을 설립, 공동물품 구입에 따른 회원상호이익을 추구하며, (3)주식회사를 설립, 부동산 투자등 회원들의 재력을 최대한으로 이용, 회원의 수익을 증대 시킨다는등 여러가지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기존 교민단체로서 가장 많은 회원과 경제력을 과시하고있는 실협과의 관계는 "서로 보완해가는 두 경제 단체로서 대화로써 협조"해 나감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조씨는 실협이 "한국에는 물론 LA등 교민들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이미 존재하고있는 상공인협회의 발족을 왜 그렇게까지 견제, 반대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협이 협상중인 도매상을 끌어가려 한다", "실협이 총영사관의 입김에 잘 응하지 않으므로 말잘 듣는 교민 경제단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측의 사주로 상공인협회가 창설됐다"는 등의 근거없는 낭설은 다 농담으로 돌리겠다는 조씨는 상공인협회의 창설은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상공인협회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단체는 아니라고 열변을 토했다.
67년 고려대 상대를 졸업, 한일은행 외국부에서 5년간 근무한뒤 71년 이민온 조회장은 베커등 컨비니언트 스토어를 경영하다 3년전 패스트·푸으로 눈을 돌렸다. 고급 레스토랑과는 달리 동양인이 경영한다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게 주효, 미시사가 한복판의 빅·맥 햄버거식당, 프린스·호텔앞 햄버거숍, 이튼·센터 전너편 버거·플러스등을 경영해왔다. 현재는 4개월전 인수한 쿠진스(Kyzine's Restaurant) 식당에 전념하고 있다. 토즈메일 동쪽인 베이뷰와 무어코너에 위치한 치킨전문식당인 쿠진스는 종업원수만도 42명, 조씨는 종업원들의 주간신문 발행을 지원하기도 하며, 쿠진스하키팀, 야구팀등도 만들었다. 〈미〉

▲속옷차림경연대회후보들—12월에 열릴 올해의 미스와 미스터·러시경연대회 마지막결승후보로 선발된 쉐리·펭크(왼쪽), 로버트·스터메니(중앙), 머린·힐티한등 3명이 속옷가게에서 각자 개성을 뽐내고있다. 〈허모사비치, 캘리포녀—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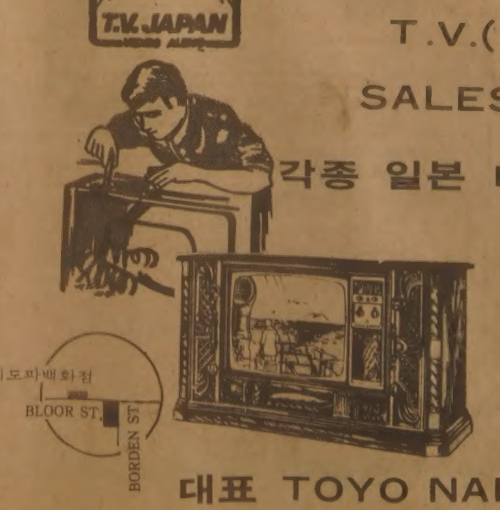
일본문화회관 확장

토론토의 일본문화회관의 계획이 실현단계에 들어섰다.
교외에 근대적설비를 갖추게 될 새 문화회관은 토론토 북방 25마일의 카렌돈 용지 구입이래 헌신적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및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프로젝트 착수허가를 얻어냈다.

김병주씨
드레이퍼리숍 인수

전 무역인협회 회장 김병주씨가 지난달 에이작스·플레이스·몰(Ajax Place Mall)에 있는 Sky Tex Fabric+Drapery Co.를 인수했다.
28년전 설립된 이 기업체는 최고급 옷감및 커스톰·메이드 커텐을 취급한다.
김병주씨는 이외에도 무역회사인 Kimball Co.를 소유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686—2112.

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폭스 ●시블 ●라쿤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T.V. JAPAN
T.V.(도시바·SONY)
SALES & SERVICE
각종 일본 비데오테잎 렌트


509 Bloor st. W.
at Borden St.
☎ : 922—6444
12 MACKINAC CRES.
☎ : 439—5416
대표 TOYO NAITO

김장뉴스

김치의 맛은 좋은 고추가루와 맛있는 젓갈 선택에 달려있읍니다.
맛좋은 순 한국산 고추가루, 구수한 멸치젓 황새기젓, 향긋한 새우젓, 싱싱한 한국산 굴, 까기 쉬운 육쪽마늘등은 삼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아직도 일손이 모자라 김장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삼복식품(☎ 743—827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입에 꼭 맞게 김치를 담아드립니다.
⊙주문 배달 환영
2437 FINCH AVE.W. ☎ : 743—8270
값싸고 신용있는
삼복식품

미, 인공심장 이식수술
의학사상 최초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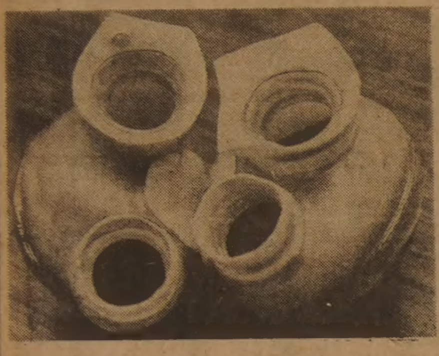
(솔트·레이크·시티) 인류 최초로 인공심장을 인간의 몸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유타대학의 의료진들은 1일밤 61세의 심장병환자"를 수술실로 옮겨 환자의 심장을 영구 인공심장과 교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수술을 받는 환자는 시애틀에서 치과의사를 하다 은퇴한 사람이며 수술팀은 이러한 수술을 하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를 받은 의사들이다.

Jarvik-7이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심장은 크기가 주먹만하며 2미터길이의 2개의 고무호스를 통해 휴대용이 아닌 콤푸레샤로부터 들어오는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게 장치되어 있다.

수술후 회복되게 되면 환자는 특별장치가 설치된 집에서만 기거하게 된다.



◆공기압축기로 가동되는 프라스틱 인공심장의 이식수술이 사상 최초로 1일밤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출생률감소로 美國人가족수 줄어

(워싱턴-) 미국가정의 가족수는 결혼율과 출생률감소및 이혼률증가등의 원인으로 점점 줄어들고있다고 인구조사국이 18일 밝혔다.

인구조사국통계에 나타난 한가정당 가족수는 지난 3월 현재 2.72명으로 1980년에는 3.14명, 1940년에는 3.67명이었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스키상식〉

박 경 택(한인스키협회장)

스키장안내는 협회에서
음주는 사고의 지름길

〈안전 10칙〉
1.준비운동을 꼭 할것.
2.무리한 스피드는 사고의 원인.
3.수면부족은 부상의 지름길.
4.넘어진 자리를 원상복구하자.
5.음주후 스킹은 사고의 원인.
6.추월할 때는 소리를 지르자.
7.안전 바인딩도 조절을 해야한다.
8.단정하지 못한 복장은 보기 흉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다.
9."한번만 더 타자"할 때가 바로 그만 둘때이다.
10.사고가 발생하거든 즉시 "패트롤"에게 연락하라.

이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스키상식은 어느정도 끝났다.

기술문제에 관해서도 초보자가 스킹을 시작하는 부분에만 언급했다. 이렇게 한가지씩 익히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백은에 빛나는 깨끗한 산과 들을 마음대로 달리고 장쾌하게 춤추듯 누비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스키에 도취하게된다.

그래서 누구나 스키의 멋과 맛을 알게되면 종생의 반려가 된다는 말도있다.

더우기 길고긴 캐나다의 겨울에서 스키의 맛을 알게되면 눈이 오는 것도 기다려지고 진겨울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짧다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토론토에도 스키협회가 지난 3월에 창립, 교민들을 위한 각종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라도 교민들의 연락만 있으면 스키구입요령부터 스키장 안내까지 적극협조할 태세를 갖추었다.

본협회 섭외담당 이전영씨는 운동구점을 스스로 경영하면서 많은 장비와 함께 스키정보를 갖추고 있다.

스키협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회장 박경택(491-1931)
부회장 강기원(773-5531)
총무 심태섭(822-4895)
섭외 이전영(Brandon 598-3732)

-끝-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저렴한 가격으로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인회 임시총회를 보고…

중요한 것의 가치

박 찬 도

자유로이 달래서 자유로울만큼 먹어야 한다. 자유로이 못달래면 자유로울만큼 못먹는다. 자유로이 못달래서 자유로울만큼 먹으면 가짜다.(자유로울만큼 못먹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로이 달래는 것"이 "자유로울만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이 달랠 수 있는 상황 만드는 일을 가장 큰 가치의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단위사회 구성원(단체회원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도자(회장 또는 대통령)를 구성원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 뽑는 일이며, 중요한 제한조성(회칙·헌법)을 구성원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며, 그 기본법을 구성원과 지도자가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으로서 가장 큰 가치 비중의 일이다. 그리고 회(또는 나라)가 구성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이나, 매우 작은 사업이나 간에 기술한 기본사항에 비하면 비중이 낮다. 왜냐하면 자유로이 달래는 일(달랠수 있는 상황)이 자유로울만큼 먹는 일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들은 책임자를 뽑는 일이나, 기본 법을 제정하는 일이나, 준법하는 일을 사실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보다도 돈이 크게 생기는 사업이나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큰 비중의 가치사항으로 안다. 그것은 "자유로이 달램"보다 "자유로울만큼 먹음"에 더 가치를 두는 천한 마음들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로울만큼 못먹어지는 것이다.(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 희한한 뜻밖의 일들이 잘 벌어지는 것이다. 자유로이 달래지 못하니까 자연 구성원이 우습게 보여져 무책임한 마음이 생겨난다.

그와같이 되는 것이 지도자 선출이나 회칙심의 결정이나 회칙지키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끔 되는 마음자세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 신중히 함과 소홀히함의 중대사 결정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중론이 돌아가기 때문이고, 이와같이 사물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 틀린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그러고도 잘못되었음을 병든 마음이 모르게 한다. 딱한 일이다)

이것이 이번 토론토한인회장 선거광경에서도 보인 잘못됨이다.

목적(번창)보다 수단(자유과정)에 더 큰 가치가 붙여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해할 때가 와야겠다. 파정의 바름을 위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트집잡는것도 아니고, 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바른 원칙을 지키고자 함이다. 이런 행동에 오해가 생기는 사람은 자유질서를 이해 못한 분으로 안다.

우리의 사상이 교정되고 발전하여 조속히 개화된 민족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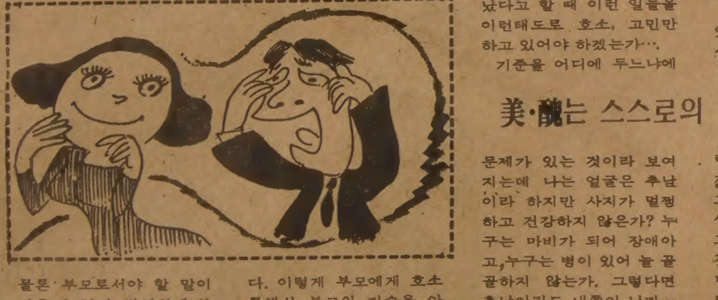
자유로이 달랠 수 있는 상황 만드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美·醜는 스스로의 自信感이 만든다



결혼을 한다고할때 서로 많은 조건들이 제시된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외모, 즉 생김새다. 얼굴만 가지고 살 것이냐? 키만 크면 잘 산다드냐? 등으로 반대를 하여 봐도 그것은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생김새는 후에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될때에 다시 문제가된다. 아이들이 얼굴이 못생겼느니, 키가 작다느니, 또한 여드름이 많이 난다, 피부가 검다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호소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한다. 왜 하필 이렇게 낳아 주었느냐는 것이다.

물론 부모로서야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당연하게 부모자신들도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었던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니 할 말은 없고 가슴만 답답하다. 이렇게 부모에게 호소를해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호소도 하지않은채 혼자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경우도 있을수 있다.

하기는 추남추녀 보다야 미남미녀가 낫고 키가 작은것 보다야 큰 것이 나을 것이다. 여드름 투성이 얼굴보다는 고운 피부가, 또 검기 보다는 흰 편이 나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지 못하게 태어났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이런태도로 호소, 고민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나는 얼굴은 추남이라 하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 않은가? 누구는 마비가 되어 장애아고, 누구는 병이 있어 늘 골골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추남이라도 내쪽이 낫지… 하는 식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두고 후회나 하고 있기 보다는 얼른 마음을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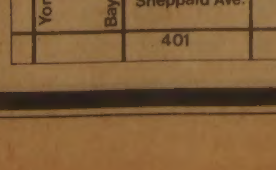
나의 생김새 운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두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내멋에 사는 것이다. 흔히 말하듯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 또 고민으로 날을 보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길 수 있을때 그에게는 자신이 생길 수 있고 이 자신은 사람의 표정을 무척 명랑하게 해준다. 자신있어 보이고 명랑한 젊은이, 설혹 잘생기지 못했고 얼굴은 검고… 등으로 외모는 보잘것이 없으나 그는(또는 그녀는)세상을 밝게 받아들이고 착실히 살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이것은 결혼의 좋은 조건일 수 있고, 이거야 말로 바로 전화위복인 것이다. 사물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SONY 비디오
X-MAS
특별가격안내
$795
SL-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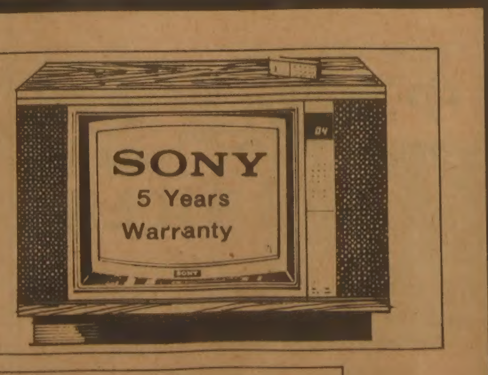
금번 SONY 회사에서는 다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인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가격으로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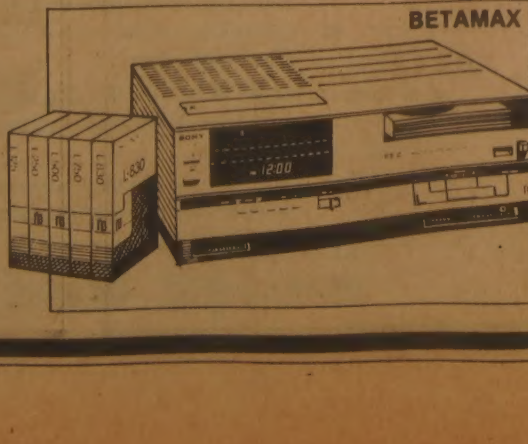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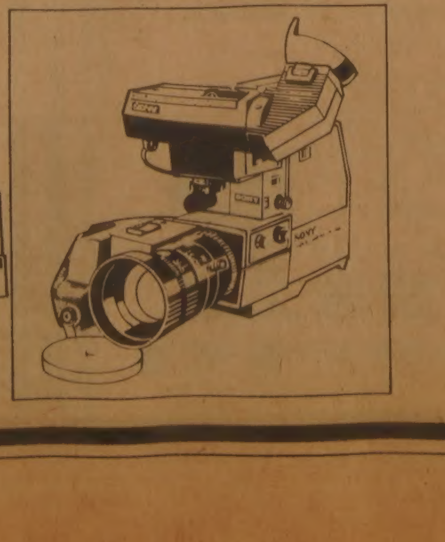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가까운 時日안에 만나 懸案 협의키로

全대통령、나까소네日首相과 電話對話

10분通話 "兩國우의 긴밀히"

◇全斗煥대통령이 나까소네(中曽根康弘)신임일본수상과 전화대화를 나누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30일하오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신임일본수상과 국제전화를 통한 韓日頂上간의 對話를 갖고 가급적빠른시일안에 서로만나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협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하오4시58분부터 5시8분까지 10분간에걸쳐 나까소네 수상의 취임에따른 전화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黃善必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전화대화에서『본인은 각하의 수상취임을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우의가 더욱 긴밀해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고있다』고 밝히고『본인은 각하의 사정이허락하는한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서로만나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할수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나까소네 수상도 동의를 표시하면서『본인도 각하를 직접뵈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전화대화를통해 또『취임초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틈을내어 취임인사전화를 해준데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까소네수상은 이에대해『취임인사를 각하께 직접 전하기위해 전화를했다』고 밝히면서『바쁘신데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상오 지난26일 全대통령이 보낸 수상취임祝電에대한 답례로 전화를 통해 全대통령에게 취임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외교경로를통해 전해왔었다.

◇나까소네日首相

일본수상은 과거에도 새로 취임할경우 미국, 아세안국가 首腦들과 취임에 따른 전화대화를 가져왔는데 한국대통령과의 전화취임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頂上간의 전화대화는 비록 전화를 통한 것이지만 지난74년 다나까(田中角榮)수상이 故陸英修여사장례식 때 조문사절대표로 訪韓, 朴正熙대통령을 만난이후 처음 가진 접촉이다.

內國稅가 잘 걷힌다

11월末 4兆8千億 追更豫算목표의 92%

◇內國稅 징수분실적 <11월말 현재·단위=백만원>

세목	82예산<추경>	82년실적(A) 당월	누계	진도(%)
총계	6,166,093	382,625	5,727,688	92·89
내국세	5,224,724	305,142	4,838,261	92·60
직접세	1,760,536	127,767	1,693,607	96·20
소득세	993,009	73,166	872,066	87·82
신고분	389·928	20·617	290·179	74·42
원천분	603,081	52,549	581,887	96·49
법인세	683,752	49,961	738,526	108·01
상속세	28,003	3,789	25,768	92·02
상속세	14,471	1,862	12,144	83·92
증여세	13,532	1,927	13,624	100·68
자산재평가세	55,767	851	57,246	102·65
부당이득세	5		1	20·00
간접세	3,344,022	171,747	3,040,734	90·93
부가가치세	2,142,931	45,555	1,971,332	91·99
특별소비세	673,077	85,227	611,042	90·78
주세	416,322	31,495	361,803	86·90
전화세	107,029	9,099	92,504	86·43
증권거래세	4,663	371	4,053	86·92
인지세	54,964	4,639	49,282	89·66
과년도수입	65,202	989	54,638	83·80
방위세	754,223	51,261	708,826	93·98
교육세	187,146	26,222	180,601	96·50

올해 내국세 稅收는 당초 예산보다 3천5백76억원을 줄여 책정한 追更예산상 목표 5조2천2백47억원을 무난히 달성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국세청이 집계한 11월말현재 내국세 징수액은 4조8천3백82억6천1백만원으로 追更예산에설정된 징수목표 5조2천2백47억2천4백만원대비, 92·60%의 진도를 보였다.

세목별로보면 법인세가 7천3백85억2천6백만원으로 108·01%를 기록, 연간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득세는 8천7백20억6천6백만원으로 87·82%, 상속세가 2백57억6천8백만원으로 92·02%의 징수실적을 나타냈다.

직접세 부문에서는 총1조6천9백36억7백만원, 96·20%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는 稅收목표를 초과할것으로 보인다.

또 방위세는 7천88억2천6백만원으로 93·98%, 교육세는 1천8백6억1백만원으로 96·50%의 징수실적을 보였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新新商事(株) 鄭弼朝대표外 2백2만원
성주産業(株) 李鍾雄대표外 1백89만원
豊殿商事(株) 李春錫회장外 1백15만원
裕炅建設 임직원 50만원
東希水産 " 50만원
仁豊建設 " 40만원
韓西藥品商事 40만원

▲新新商事(株) 대표이사 鄭弼朝씨외 임직원一同=2백2만7천3백60원 ▲성주産業(株) 대표이사 李鍾雄씨외 임직원一同=1백89만6천5백55원 ▲豊殿商事(株) 회장 李春錫씨외 임직원및 종업원一同=1백15만원 ▲裕炅建設(株) 대표이사 尹炳歡씨外 임직원一同=50만원 ▲東希水産(株) 대표이사 金秀男씨외=50만원 ▲仁豊建設대표이사 유재원씨외 임직원一同=40만9천원 ▲韓西藥品商事 사장權哲씨외 직원一同=40만원 ▲鍾路區관수동11통주민一同=21만5천5백원 ▲世興商事(株)사장 金亨宣씨외직원一同=20만원 ▲한국영화인협회 기술분과위원회원一同=15만4백원 ▲大華石材産業(株) 대표이사 崔長浩씨외임직원一同=10만원 ▲한국과학안경공업협동조합 임직원一同=10만원 ▲在美 CORPOVA HIGH SCHOOL 김종오군=美貨1백달러 ▲도봉구상계2동387의212 상계동주유소 대표이갑진씨=5만원 ▲방배동 삼화친목회장 박경수씨외회원一同=5만원 ▲송파회원一同=3만원 ▲성동구성수2가2동상신 친목회원(대표조상동)一同=3만원 ▲강동구둔촌동주공아파트413동주민一同=2만5백원 ▲서울금화국교1년 곽민정양=2만원【소년한국접수】

<30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테니스 두種目(女複式 混合) 또 金따냈다

金男淑·申順浩조 日本완파 金春浩·申順浩조(混合 복식)도 우승

◇金男淑

◇申順浩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테니스에서 두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30일열린 테니스 여자복식 결승에서 金男淑 申順浩조는 노련한경기운영과 잘짜여진팀웍으로 日本의 기무라(木村) 이또(伊藤)조를 2-0으로 제압, 테니스여자단체전에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金·申조는 첫세트에서 기무라·이또조의 파이팅으로 3-3으로 접전을 벌였으나 金의 재치있는 발리공격에 힘입어 6-3으로 첫세트를 끝낸뒤 제2세트에서도 노련한 게임운영으로 내리 6게임을 따내 6-2로 이겼다.

한국은 金메달 15개를확보, 종합3위를 굳건히 지키고있다.

이날혼합복식결승에 출전한 金春浩·申順浩조도 日本의 이노우에·나까니시조를 2-0으로 눌러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순호는 여자복식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됐다.

▲여자복식결승
金男淑 申順浩 2(6-3 6-2)0 기무라 이또
▲남자단식준결승
金春浩 2(7-5 6-0)0 리슈화

韓·日議員聯總會 年內개최를 추진

韓日의원연맹은 日本의 나까소네(中曽根)새內閣의 출범을 계기로 중단됐던 경제협력등 양국간의 현안을 조속히 타결짓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韓日의원연맹총회의 年內개최를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李相翊간사장은 30일『나까소네內閣이 출범하면서 두세차례에 걸쳐 韓日經協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한것을 주목할 필요가있다』고 말하고『연맹측은 내달에 合同총회를 열어 韓日간의 현안타결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成長沮害요인 제거"

全대통령、輸出의날 致辭

全斗煥대통령은 30일『세계각국의 새해景氣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우리의 交易상대국들이 低成長과 失業의 압력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한층더 강화함으로써 輸入需要가 계속 감퇴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고 전망하고『이러한 국제경제환경에서 정부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安定成長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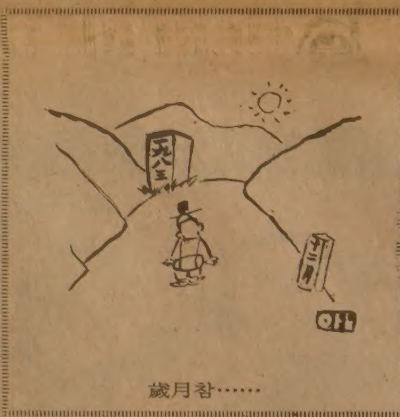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수출의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이를 위해 국내요인에의한 물가상승이 최소화되도록 通貨와 財政의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賃金과 金利등 공급측면에서 안정基調가 지속될수있도록 모든 시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우리나라 경제성장의 牽引車가 되고있는 수출도 안정의바탕위에서만 지속적으로 신장시켜나갈 수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다지면서 수출진흥을위해 附加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한편 輕工業제품의 품질고급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것이며 아울러 수출지원제도를 계속 보강해나가고 정부와기업의 通商활동을 적극화하기위한 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우리경제가 안정을 實體化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노력못지않게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家計가 모두 국가경제 운용의 主體라는 인식아래 혼연일체가돼 정부의安定化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할것』이라고 당부하고『정부의 지원이나 근로자와 국민의협조에만 의존하려는 안이한 자세로서는 오늘의 각박한 국제경제환경을 뚫고나갈수 없으며, 기업의존립과발전도기대할수없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세계경제에 언급,『지금 세계가 당면하고있는 격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이 앞장서 이위기를타개해나가는단호한조치들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社会漫評


歲月참……

資源法案 留保검토

民正、誤解없게 公聽會열수도

民正黨은 정부가 제출한 資源관리법안을 비롯, 야당이 제출한 지방자치제개정안등 政治議案을 이번 정기국회기중에 처리않고 繫留시킬방침이다.

李鍾贊民正黨총무는 30일 資源관리법안처리와 관련,『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법안처리를 강행했을 경우에 일어날 부작용을 고려, 야당측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방침』이라며『야당측이 그래도 수긍하려들지않을 경우는 무리하게 이번會期내 처리를 고집하지않겠다』고 계류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야당측이 주장하는 政治議案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야당측의 주장을 봉쇄하기에 앞서 우선 현행대로 운영의 妙를 살려나갈것』이라고 말해 政治議案역시 이번회기안에 처리하지않을 뜻을 비쳤다.

李총무는 이어『金融實名거래법에 대해서는 民正黨이 이미제출한 修正案대로 이번회기내 통과시킬방침』이라고 밝히고『銀行法 개정안은 금융관계법심사 小委에서與野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地平線

새해 들면서부터 미터법시대가 열리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척관법의 강력한 규제를 앞두고 29일 건설부、내무부、농수산부및 각 시도에 대해서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데 당국의 이런의도나 부산한 활동과는 달리 정작 일상속에서 실지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반민간이 과연 그런규제에 어느정도 호응케될지는 감감하다.▼미터법의 역사는 널리 알려진대로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다음 2년후 만들어진 것이나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미터법으로 국제단위화한다는 것을 의결하기는 22년전인 1960년이니 그역사는 짧다고 할수가 있다. 현재 미터법의 강제사용국은 97개국이고 임의사용국은 29개국에 머문다.▼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관법은 지난날 동양 3국에서 통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우리만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한홉이 성인들 한끼의 곡물분량이요, 한평은 어른 하나가 누기에 꼭알맞은 넓이 이듯이 척관법은 지극히 인간적인 체온이 스민 단위이다.▼그에 반해서 미터법은 지구의 크기에서 재어낸 것이니 척관법과 같은 친근감을 지니기가 어렵다.▼또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차 미터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트、파운드、부셸같은 재래식단위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나라 할것없이 계량단위를 바꾼다는것은 이처럼 극히 어려운 일이다.▼그런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서두는데도 까닭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모든 공산품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 제조되고 또한 소비된다. 그래서 계량단위를 국제규격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혼란이 빚어지기 쉽다. 또 미터법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계량단위의 단순화는 일상생활에도 많은 편의가 따른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이웃 일본의 경제적 번영도 철저한 미터법의 도입시행에 힘입은바 크다는 얘기고 보면 조만간 우리도 미터법사용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규제가 불가피 하다고 일응 수긍이 된다. 그러면서도 과연정부나 관계당국이 정작의 개념을 어떻게 생활화 시킬것인지가 자못 궁금하다.▼각기업과 유통기관및 가정에 보급하는 정부의 계량규격을 제정하여 오랜 관습으로 굳은 종래의 계량감각에서 벗어날수 있는 일정한 계몽기간을 좀 더 갖는것이 일을 순리로 풀어나가는 길인듯 하다. 이같은 충분한 계몽기간 없는 시행은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수 있을 소지를 지닌것이기 때문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직 급
교육·운비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中東 同門
동창연말파티초대
아래와 같이 연말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부부동반 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2월11일(토) 오후7시
⊕장 소 : 마초레스토랑
⊕회 비 : 부부 $30
⊕연락처 : 홍사겸 ☎ 742-5672
이용석 ☎ 595-0836
중동고교
동창회장 홍사겸

고려·연세의 밤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안암골 호랑이와 신촌 독수리가 또 다시 만나는 기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읍니다.
고려대학교 교우님들, 연세대학교 동문님들, 모두 오서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눕시다.
—아 래—
□ 때 : 1982년12월17일(금요일) 오후 7시
□ 곳 : SAI WOO RESTAURANT 3층
130 DUNDAS ST. WEST
(Bay St. 과University Ave. 중간, 시청뒤)
□회 비 : COUPLE—45불
SINGLE—25불
오후7시~8시 : Reception, 8시~9시 : 식사,
〃 9시~1시 : 여흥, 경품추첨(Door Prize), Dance
□사 회 : 이광민
□연락처 : 고려대 : 조병역(421-9144) 정필주(661-1819)
연세대 : 문영환(923-3846) 조남수(298-4480)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서준경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장 박남희

숙명여고 동창
망년회
숙녀회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 해가 간다합니다. 반가운 숙녀회 식구끼리 아쉬움을 풀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디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곳 : 김봉진회장댁
4172 TRAPPER CRES.
MISSI, (전화 : 820-0483)
(W. Erin mills PKY×North of Burnhamthorpe)
준 비 : 본회에서 저녁과 음료일체를 준비합니다.
후원비 : $20
문의처 : 회장 김봉진(Mrs. Lee) 820-0483
총무 이난희(Mrs. Kim) 530-1967
*아직 동창회 명단에 오르시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숙명여고 토론토동창회

美·蘇 등거리外交 中共서 추구

12全代때 확정된듯 兩國 中共카드경계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 외무성은 중공이 中·蘇화해를 축으로 美·蘇에대해 등거리외교를 펼것을 明記한 중공의 비밀외교문서를 입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1面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중공의 이 극비외교문서에 의하면 중공당국의 제1차목표는 경제건설이며 소련과의 대결은 중공에게 이익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아래 中·蘇관계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지만 소련의 覇權主義를 경계하고 미국과 소련을 같은거리에 두고서 독자적자주외교를 펼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中共12期全黨大會(12全大會)를 전후해서 작성된것으로 보이는 이 비밀문서는 美·蘇가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중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냉철히 분석하고 종합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공이 이같은 외교문서를 만든것은 12全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성립된뒤 「4개現代化」의 추진등 새로운 施政방침에 따른 외교노선을 黨간부들에게 설명할 필요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외무성은 분석했다。

중공의 극비외교문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美·蘇양대국은 서로 覇權을 다투고 있다。군사면에서는 소련이 공세에 있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련에 비해 군사적 열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미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경제적으론 대국이지만 대국주의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있다。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중공의 이익에 합치된다。

②미국은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그러나 미국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보완할목적으로 중공과의 정상화를 추구했다。미국은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할때「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臺灣문제에 관여하고있다。

이것은 중공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미국이 이같은정책을계속하면 美·中共관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못한 영향을 줄것이다。

③소련은 최근 중공에대해 화해를 요청하고있으나 이것 역시 소련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다。

소련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우위에 서있으나 국제적고립과 국내경제의 곤란등으로 중공과의 긴장완화가 소련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다같이 覇權을 추구하면서 「중공카드」를 이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소련이중공과의 화해를 원하고있다고해서 覇權主義와 대국주의의 본질을 포기했다고는 볼수없다。

소련은 장기적으로 중공과 우호관계에있으며 중공이 소련과 과격하게대결하는것은 중공에대해서도 이익이 아니다。

④중공은 어떤외국의 지배도 받지않는 독립국가이며 覇權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중공의 3大施政방침은 경제건설과 臺灣의 해방에 의한 국내통일과 覇權主義의 반대이며 이 가운데서도 경제건설이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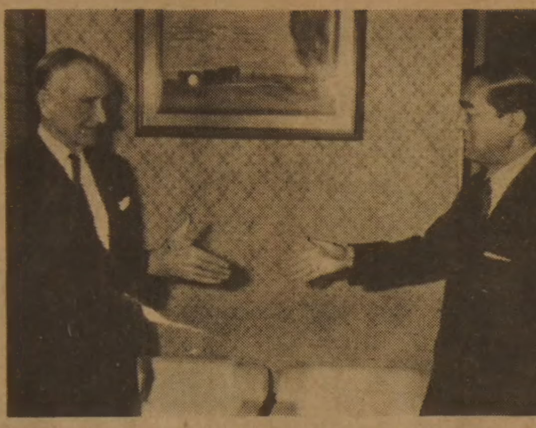
왜냐하면 힘이없는 외교는 존립할수없으며 독립자주외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에의해 힘을기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토서 퍼싱Ⅱ·크루즈 配置하면

蘇, 「경계發射」 태세로

半官營「노보스티」통신 시사

미사일接近때 즉각報復



◇나까소네와 맨스필드對面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신임 日本수상㊨이 30일수상관저에서 마이클·맨스필드 駐日美大使를 맞아악수를 나누려하고 있다。맨스필드大使는 나까소네수상에게 레이건 美대통령의 親書를 전달했다。【東京30日AP=聯】

【모스크바=聯】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예정대로 오는 83년12월부터 서구에미제신형순항(크루즈)미사일4백64기와 퍼싱Ⅱ미사일 1백8기를 배치할 경우 소련은 그들의군사태세를「경고발사」태세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것이라고 소련의 반관영 노보스티 통신이 29일 시사했다。

이 통신은 이날 모스크바주재 서방통신사 지국들에텔렉스로 배포한 기사에서 소련국경에 핵미사일이 접근해올 경우 소련도『거기에즉각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할것』으로 소련군사지도자들은 보고있다고 강조하면서나토측의 순항및 퍼싱Ⅱ미사일배치계획에 따라 새로운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소련의 보복공격이 미국의 미사일발사기지들뿐만아니라 서구의 인구조밀지역들에 대부분 위치해있는 지휘소들과 통신센터들,그리고 무기저장소들을 겨냥하여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보스티통신은 이날 실제로「경고발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경고발사」란 여태까지 어떠한 核보유국들도 우발적核戰을 야기시킬 위험성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지하지않은 전략적 입장이다。

美, 蘇에새협상제의 地下核禁 批准위해

【워싱턴AP=聯】레이건미행정부는 닉슨및 포드행정부때 체결된 2개의 지하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기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을 곧 소련에 제안할것이라고 미관리들이 29일 말했다。

이관리들은 이에대한 레이건대통령의 최종결정은 국가안보위원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그의 주요각료들의건의를 받아들인후인 앞으로약1주일이내에 내려질것으로보이며 그런다음 협상의 재개여부결정은 소련의 새지도층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이건행정부는 지하핵실험전면금지조약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재개 가능성은 배제해왔다。

우루과이 野黨大勝

9년軍政에 民主복귀길터

大統領 豫選

【몬테비데오UPI·EFE=聯】지난28일 실시된 우루과이대통령예비선거에서 야당이 9년간 집권해온 군사정부에대해 대승을 거두어 신속한 민주복귀의 길을 열었다。

우루과이시민들은 29일 야당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사독재가 붕괴되고 있다」「단결하는 국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등의구호를외치면서 자동차 경적을 울려대기도 했다。

약 2백만명의 우루과이국민중 1백20만명이상의 유권자들이 28일 오는 84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기위한 5백명의 선거인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했다。

이번 예비선거결과에 대해 그레고리아·알바레스 군정대통령은『국민 양심의 성숙도를 보여준 척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우루과이 국민은 지금부터 미래에 신념을 가져야한다』고 답변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중도파의 블랑코(백색)黨후보들중 반정부후보가 78%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친정부후보들은 겨우 9%에 머물렀다。

나까소네 改憲意思표명

政治哲學書에담아 各國에 보내

【東京AP=聯】나까소네신임 일본수상은 최근 세계각국에 보낸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자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김아래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하며 국방을 자체군사력에 의존해야한다는 개인적입장을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밝혔다。

「나의 정치생애」라는 제목이 붙은 82페이지짜리의 이 책자는 나까소네수상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철학을 수록한것으로 자민당총재당선직후 東京주재 각국대사관을 통해 각국정부에 발송했다고 수상실의 한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나까소네수상은 이 책자에서『한나라의 헌법이 스스로의 자위능력 보유에 의문의여지를 남기고 있다면 이는마땅히 개정돼야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일본이 미국의 방위우산아래서 보호를 받는대가로 미국의 장기일본주둔에 동의한 美·日안보조약(1951년조인)의 개정도 촉구했다。

蘇 아프간서 撤收희망

안드로포프, 지아大統領에 밝혀

【런던AP=聯】안드로포프신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최근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철수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것으로29일 전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지는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 장례식직후 모스크바에서 가진 지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같이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아대통령은 또 소련이 아프간주둔병력 10만명의 철수를 바라고있다는 가정하에 협상을 시작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면서『소련이 超강대국이란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그들의 말을 믿지못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北韓 駐在國 외교관 醜行 회의서다뤄

【뉴욕=聯】유엔주재국관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유엔주재북한대표부 3등서기관 오남철의 미국여인추행미수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으나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않아 아무런 타결책을찾지못하고 끝났다。

人事異動

外務部

▲본부근무 朴東奎(駐사이레대사관참사관)▲〃 金三勳(駐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참사관)(27日字)

本社來訪

▲金泰卿씨(農漁村開發公社社長)▲辛建鎬씨(〃副社長)▲李在于씨(〃理事)▲李舜孝씨(浦項綜合製鐵弘報室長)新任▲權寧國씨(農開公理事)遷任인사차

社說

저무는 한해 마무리

—82年을 장식할 명랑한 歲暮되길

送年의 달 12월이다。無常한 세월에「어느덧…」하는 소리가 저절로나온다。82년의 해는 지금부터 종종걸음치듯 바쁘게 저물어 갈것이다。세밑이 다가오면 까닭이야 무엇이든 마음은 奔走하듯 바빠만 진다。

지난 한해를 함께 지내온 캘린더도 마지막 잎새처럼 한장만 달랑남아 색깔이 바랬다。시간의 흐름은 쉴도 끝도없다。有限한 생명의 활동은「生滅의 섭리」에 따라 무한한 시간속에파묻혀 간다。그래서 과거는 추억으로 남고 우리의 年輪이 또하나 그어지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82년의 한해도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다。千態萬態의 삶이지만 삶은 누구에게나 고귀한것이다。이제 굽이 굽이 살아온 발자취를 마지막 달에 엮어서 정리해 볼때다。

보람 넘치는 삶의 충복에 감사를 드릴수도 있겠고, 쓰라린 悔恨이 남는 사람들도 있음을 안다。과거의 回憶은 단순한 감상때문이 아니다。후회 없는 새로운 내일을 꾸려가기 위해서다。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나라일을 걱정하며 이해를 지낸이들도 많았을 것이다。뜻하지 않았던 재난도 겪었으며, 나라 안팎에서 밀려온 도전의 물결도 거세었다。재난은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고 경제의 어려움도 슬기와 인내로 버텨냈다。밖에서의 도전이 세찰수록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힘도 강해졌다。나라안의 안정이 뒷받침 했기 때문이다。당당한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로 향해 줄기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이 자신감은 앞으로 충만감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싶다。

세모는 생각하는 계절이다。그리운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에 와서 닿는다。相思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정감이다。「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은 신앙인만의 신조일수는 없다。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내몸처럼 돌볼생각이 솟아나는것이 인정이다。이 손길을 넓게 뻗치는것을 生의 보람으로 여기고 싶어진다。마음의 추위는 체온으로 밖에 녹일 방도가 없다。

송년의 거리엔 유혹의 덫이 깔려있다。크리스머스를 전후해, 망년의 잔치가 붐빈다。청소년들은 들뜨기 쉽다。자제를 잃으면 후회만 남는다。분수없이 흥청대다 보면 연말결산은 적자로 몰린다。금전의 득실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는것을 잊지말았으면 좋겠다。

오랜 不況은 고통스러웠으나 검소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주머니끈을 죄어가는 주부들의 안스런 절약이 우리 생활을 이만큼 지탱하고 안정하게 이끌어왔다。세밑이라고 절제의 끈을 풀어 놓는다는것은 어리석다。

지금부터 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것이다。겨울災難의 걱정이 앞선다。강추위에 잔뜩 움크리다 보면 행동이 둔해지고 부주의가 따른다。겨울재난의 주범은 바로 이 부주의다。화재나 연탄가스의 위험은「조심」밖에 달리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새겨둬야 한다。불행을 막는「예방의 담장」을 쌓아야겠다。

연말치안에도 긴장이 요구된다。우범적범죄나 한탕주의를 감시하고 미리 억제시켜야「명랑한 세모」는 보장 받는다。방범활동의 강화는 당연,하고 절실하다。폭력과 범죄가 난폭하고 지능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마지막은「有終의 美」로 장식되어야 빛이난다。여기서 새해의 밝은 기약이 피어난다。매듭이 어지럽고 얼룩이 진다면 새 출발이 음산해 진다。

「자기존중, 자기인식, 자기통제, 이 세가지가 자주적 인생을 인도한다」고 시인 테니슨은 말했다。한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깊은 뜻을 일깨워 줄것같다。

만물이 숨을 죽이는 추위속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또변한다。83년의 새로운 태양을 기다릴 채비를 다져본다。

蘇軍의 아프간 撤收說

—緊張緩和위한 斷案 내려야할때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侵攻은 이제 滿3년에 접어들고 있다。

유엔總會는 29일 지난 79년12월 소련軍의 아프가니스탄侵攻이후 4번째로 모든外國軍이 아프가니스탄에서즉각 철수할것을 촉구한 결의안을 贊1백14표, 反21표, 기권13표의 압도적표차로 채택했다。

이같은 유엔總會결의가 각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최근 지아 파키스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撤軍을 바라고있다고 말한것처럼 보도된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기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지아대통령은 소련軍철수이전에「特定條件」이 충족되어야하며 철수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일이 일어나야한다고 안드로포프 서기장은 그와의 회담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물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10만명의 소련軍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철수하지는 않을것이다。하지만 지아대통령이 안드로포프의 등장으로 크렘린이 모종의 새 접근방식과 다소 신축성있는 정책을 채택하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것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아프가니스탄事態 해결에 관한 모종 타협없이 東西간의 팽팽한 對立관계가 풀리지는 않을것이다。근래 더 심해진 美蘇관계의 긴장對立과 蘇·西歐사이의 硬直된 관계는 따지고 보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있다。

하기야 그게 아니더라도 소련이 70년대 중반께부터 쿠바軍을 代理세력으로 삼아 앙골라와 이디오피아에 진출하고, 南예멘에 基地를 확보, 리비아에다 군사장비를 대량 투입하여 西方국가들을 위협한것을 간과할수는 없다。

그러나 東西관계를 결정적으로 惡化시킨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련軍의 직접적인 아프가니스탄 侵攻이라고 해야 할것이다。70년대의 데탕트가 죽었다는 말도 아프가니스탄 事態이후 나왔다。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과는 그성질을 달리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소련軍의 아프가니스탄侵攻이 美蘇間 새 冷氣의 한 始發點이 되었듯이, 소련軍 철수에 의한 모종의 아프가니스탄事態해결은 반대로 긴장완화와 和解의 始發點이 될것이다。

이렇게보면「結者解之」란 말이 떠오르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事態해결을향한 外交先手를 취해야한다는 세계의 압력은 의당한것이라 하겠다。

한편 中蘇관계正常化를위한 兩國협상에서도 소련軍의 아프가니스탄철수를 中共은 한 기본조건으로 내걸고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侵攻한지는 3년이 흘렀다。하나 기대했던것과는 반대로 소련軍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抵抗의늪에 빠져들면서 정치·경제적인 값비싼代價만을 치르고있다。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은「소련의 베트남」이 되고만 상태다。

베시美합참의장은 아프가니스탄事態는 3년전보다 나은 전망을 소련에 보여주지 않고있으며, 소련은 이제 그 侵攻을 후회하고 있을것이라고 최근 밝혔다。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이「소련의 살속에 박힌 가시」라고 적절하게 비유했다。따라서 이제 아프가니스탄事態를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方案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自決權이라고 미테랑은 강조하고 있다。

소련에서 근대공업사회와 공산사회 硬直性간의 不調和로 生産性이 현저히 저하하여 경제적 苦境에 빠져있는것이 아프가니스탄 해결을 서둘러야 할 한 요인이 되고있다。소련이 60~70년대에 군비증강의 길을 그렇게 쉽게 걸어온것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가 그 바탕이 되고있었다。80~90년대에는 그같은 군비 증강은 가능하지않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데탕트는 결코 과거의 정책이아니고 장래의 정책이다』고 안드로포프서기장은 말했지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해결에의 융화적 자세를 보여 西方과의 긴장완화,和解의 길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記者의 눈

暴力과 選良의 品位

국회의사당은 흔히 民意의 殿堂이자 聖所로 불린다。

이러한 聖所의 주인인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을 이끌어야할 師表요 龜鑑이다。

따라서 選良의 一擧手一投足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될뿐더러 모범이돼야한다。

민주국가에있어 議會정신의 요체는 대화와 토론과 규칙이다。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이론정연하게 개진할때 의회정치의 妙味는 한결 돋보이게 되는것이다。

최근 국회稅法심의도중 일어났던 民韓黨소속 朴完圭·李敏根두의원간의 폭력流血사건은 국민의 師表가 돼야할 選良이 신성한 의사당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많은 동료의원들을 실망케했다。

물론 과거 歷代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 토론의過熱 내지의견충돌로 멱살잡이, 名牌나 자료보퉁이던지기, 서로 밀치기등의 격돌이여러차례 있었지만 流血사태를 빚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된것이다。

30일의 民韓黨 당무회의는 黨紀委의건대로 朴·李두의원에대해 각각 3개월 資格정지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활동만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선언적 의미를갖지만 품위와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으로서는일반인의「禁治産」에 가까운치명적 重罪가 되는 셈이다。

이렇듯 무거운 징계가불가피했던것은 사안이 지닌 특이성때문이란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동료를 징계하는 아픔속에서도 民韓黨이라는 한조직,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公黨的 자세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뼈아픈 의지의 일단을 읽게된다。

사실 어느 조직사회이건 질서의식에 대한 확고한 가치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이미「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당이념의 珠玉으로삼고있는 民韓黨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한「엄격한규율」을 적용시킨것은 자연스러운사태의 뒷수습으로 봐야겠다。

동시에「기자의 눈」은 重罪결정의 사유에서『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는 대목을 눈여겨 보게된다。

폭력정치를 그토록 증오하는 국민의 따가운 눈을 한마디로 대변하는「바로 그 소리」처럼 느껴진다。

국회의 권위나 국회의원에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의원들이 스스로 師表라는 인식아래 품위를 지킬때만 이뤄진다는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李成俊기자】

政局往來

◆사소한분야까지 챙기는 습관필요

全斗煥대통령은 30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수출의날」기념식에이어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베풀어진 다과회에 참석, 수출有功者등 관계인사들과 환담하며『수출전선에서 전쟁하는 이상의 정신력과 사명감으로 활동하면 다음 세대에 훌륭한 나라를 넘겨줄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이제는 通禁마저 없어져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불철주야 뛰고있음을 잘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애써 만들어 마지막 사소한 분야를 흐지부지하게 다루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많은만큼 조그만 일까지 챙기는 습관을 길러 우리 속담의 龍頭蛇尾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

全대통령은『월급 적은사람이 오히려 아껴 집을 사고 월급많은 사람이 그집에 세들어 사는경우도 많이 보았다』면서『西洋사람들이 못한다는 수출도 우리식으로 곰곰 뜯어보고 노력하면 가능한것도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自家撞着 인식할때까지 기다릴터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30일상오 중앙당사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야당이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格으로 資源관리법안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있다』며『維新殘滓일소를 부르짖던 그사람들이 自家撞着에 빠져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때까지 기다릴생각』이라고 이법안의 계류방침을示唆。

그는『資源관리법안은 한톨의 오해를 받을것이 없는데도 어처구니 없게 오해를 받고있다』면서『야당측이 현행의 資源운영에 관한 규정을 代替할 입법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입장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될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소 느긋한 자세。

◆최선다했는데…辭表낼수밖에

새해예산안의 대폭 삭감이란 실적을 올리고서도 自中乙亂을 일으키고있는 民韓黨은 30일의당무회의에서도 混線을 거듭한끝에 예산삭감의「牽引車역할」을 했던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의 辭意 표명으로까지 발전。

이날 회의에서도 金承穆 吳洪錫 金元基의원등은 전날의 새해예산안 만장일치통과에대한 성토에이어 여전히『정부原案보다 稅收를 올려놓은것은 국민의 稅부담을 가중시켰을뿐』이라고 공세를 계속。

이에 金의장은 身上발언을 통해『나대로는 최선을 다해 방위비를 포함해 1천3억원을 삭감시켰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리를 내놓을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잖느냐』면서 辭意를 표명한뒤『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선언。

회의후 金珍培대변인은『金의장의 사퇴선언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金의장은 기자실로 찾아와『辭意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다』고 不變입을 더욱 강조한뒤『전당대회를 앞두고 黨權도전과 연결시킨다면 섭섭한 확대해석』이라고 쐐기를 박기까지。

한편 예산삭감을 둘러싼 是非가 계속 일자 적잖은 소속의원들은『이래서 體質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稅收는 부담이 되고 國債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냐』며 이곳저곳서 한숨。

豫算삭감놓고 自中之亂 일으킨 民韓 "이래서 體質野黨" 자탄도

◆資源法 소관常委문제 異議제기

30일하오 국회本會議에서는 趙舜衡의원(議政)이 散會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資源관리법안의 소관常委배정문제등에 異議를 제기하면서 丁來赫의장의 공식해명을 요청하여 잠시 소란。

趙의원은『이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지 11일만에 의원들은 법안내용과 국방위 배정결정을 알게되었다』고 지적한후『議案이 제출되면 2~3일내 의원에게 알리고 本會議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이유와 국방위에 배정한 이유를 공식해명하라』고 丁의장에게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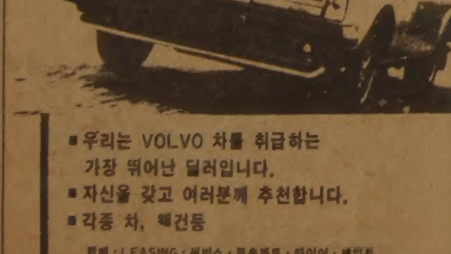
이에 丁의장은『지난10월25일 이법안이 국회에 제출된후 소관常委배정문제를 연구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11월4일 국방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해명한후『소관常委 배정문제는 趙의원뿐 아니라 여러의원들이 異議를 제기하고 있는만큼 운영위와 협의하여 常委배정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왜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 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동우년말잔치

친애하는 동우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한 올해도 저물어가는 이 때!

우리들의 "동우년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12월11일(토) 오후7시~익일1시

장 소 : THE SKYLINE HOTELS
655 DIXON RD. (at HWY 27)
International Room "C" (1층)

밴 드 : 캄보밴드 가 수 : 초청 교섭중

*경품 다수 준비코 행운권추첨이 있음.

입장권 : 자문위원,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 745-5301 박진근 431-5958 이영만
759-8349 김진현 277-8985 고성호
658-6463 김남용 488-4519 신우원
261-2917 이완식 746-4220 조국현

동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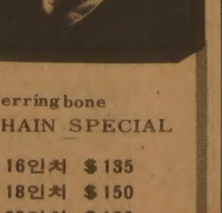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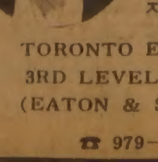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용달차料金 "부르는게 값"

미터器 있으나마나…2~3배까지 요구

김장철맞아 橫暴 더욱 심해

용달차미터기는 있으나 마나한것인가. 부르는게 요금이라니 말이다. 특히 김장철을 맞은 요즘에는 많은 알뜰주부들이 가계비를 줄이려고 龍山, 京東, 中央등 김장시장을 찾고 있지만 용달차운전사들의 횡포에 몰려 김장거리를 싸게사 득보다 더 비싼요금을 용달차값으로 물고있다는것이다. 김장시장주변의 용달차 운전사들은 미터요금의 2~3배를 요구하고있으며 이같은요금을 주지않으면 아예 운행거부까지 일삼고있다.

용달차의 미터요금은 지난해 6월11일부터 교통부허가를받아 기본 1천8백원(5㎞), 주행요금 1백20원(매5백m당)으로 책정, 시행되고 있는데 운전사들의 횡포는 김장철뿐만아니라 이사철이나 길거리에서 잡았을때도 일어난다.

서울시내 김장 시장중에도 제일 규모가큰 龍山청과물시장에만도 하루평균 3~4백대의 용달차들이 몰려들고있는데 곳곳에서 김장감을 구입한 주부들과 용달차 운전기사들이 흥정하는모습이 눈에뛴다.

대부분의 운전사가 미터기요금에 웃돈을 요구하는데더러는 미터기를 꺾지않고 실제 나오는 요금의 2~3배를 요구하는일도 잦다. 이때문에 주부들은 김장감을 사놓고 용달차를 잡기위해 보통30분~1시간씩 시장바닥을 이리뛰고 저리뛰는 곤욕을 치르고있다.

서울鍾路區 惠化洞에 사는 주부 李玉子(41)씨는 30일 하오 龍山청과물시장에서 김장용배추 30포기를 1만5백원에 샀는데 20여대의 용달차 운전사들과 흥정을벌인끝에 가까스로 9천원에 집까지 실어 날랐다.

이구간의 용달차 미터요금은 3천5백원밖에 안되는데 李씨는 2배반이넘는 운임을 주어 차라리 앉아서 배추를 사는것보다 비싼값을 쓴꼴이 됐다.

이런 웃돈사정에 어두운주부들은 용달차를 이용하려다 무안당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江南區大峙洞銀馬아파트에사는 주부 李惠英씨(45)는 龍山시장에서 집까지 미터요금이 3천8백원정도 나오는것만 알고 배추50포기와 무우30단을 실으려 용달차운전사에게 『미터요금에 수고비를 얹어주겠다』고 말했다가 운전사로부터 『미터요금으로 용달차가 움직이느냐』고 핀잔을 받았다는것. 李씨도 울며 겨자먹기로 8천원의 운임을 물었다.

용달차 미터기가 무용지물이 된것은 오래된일로 대부분 운전사들은 『돌아올때 빈차로 돌아와야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대고 미터기외의 요금을 받아왔다.

특히 용달차운전사들은 자주 이용하는 시장상인들에겐 웃돈을 적당한 선에서 받지만어쩌다 한번씩 이용하려는 주부를 만나면 바가지를씌운다는것.

또 거리가 먼곳은 아예 운행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서울鍾路區 [illegible] 사는 주부 白英姬씨(32)는 龍山시장에서 산 배추 1백포기를 운반하려고 1만3천원을 줬다는데 운전사들은 거리가 멀고 지하철공사구간이란 이유로 날라다주면서도 탐탁치않은 불평을 했다는것.

용달차운임은 龍山시장을 기준으로 永登浦·蠶室·新村등지는 6~7천원, 佛光洞·長位洞·寶蓮동지는 9천~1만원씩을 요구하는게 거의관례처럼 돼있다.

현재 전국의용달차 대수는 1만6천4백여대로 이중 6천8백여대가 서울에 몰려있다. 【李秉泰기자】

◇김장市場의 「無法者」 용달차 미터기가 있으나 마나다. 특히 김장철을 맞은 요즘에는 용달차들이 미터요금의 2~3배를 받고 있어 피해를 당하는 주부들이 많다.

問題·正答 시험뒤 즉시發表

내일 大入학력고사 점심시간 外出도 허용

[illegible] 83학년도 대입 학력고사 [illegible] 문제가 발표되며 하오7시에는 정답도 발표된다. [illegible] 시험시간을 개방, 낮12시50분~하오1시50분까지 1시간동안 수험생이 고사장밖으로 나갈수있도록 허용했다. [illegible]

오늘 大入수험생 豫備소집

[illegible] 30개고사지구별로 [illegible] 1일 [illegible] 된다.

택시뒷좌석에 屍體

29일 상오11시께 서울永登浦區楊坪洞4街8 국세청앞길에 세워져있던 서울4바2634호 영업용택시 뒷좌석에서 상관인쇄소직원 崔俊永씨(25·서울永登浦區楊坪洞4街278)가 이마에 피를 흘린채 숨져있는것을 지나가던 趙周衛씨(45·상관인쇄소 공장장)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趙씨에 따르면 이날 상오8시께 회사근처에 서있는 빈택시를보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3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세워져있어 이상히여기고 택시안을 들여다보니 전날인28일 하오10시께 [illegible] 崔씨가 뒷좌석에 숨져있더라는것.

경찰은 택시의 왼쪽라이트 앞부분이 크게 부서져있는점으로 미루어 崔씨가 이차에 치인뒤 숨진것으로 보고 택시운전사 洪모씨(23)를 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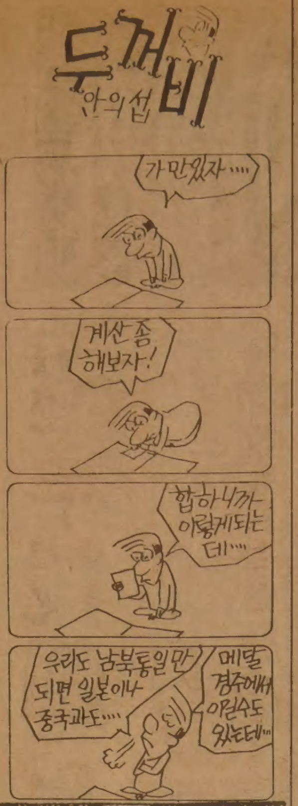
民願서류 記載 간소화

내무부, 주민등록번호로 代替토록

내무부는 30일 각종 민원서식중에서 본적 생년월일 성별등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수있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간소화, 일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1천2백86종의 민원중 5백1개 민원에 사용하는 5백18개서식을 간소화하기로했다.

내무부가 중앙부처와 협의 간소화하기로한 내용은▲현행 민원서식중 민원신청내용과 직접관련이없는 신청인의 본적 생년월일 학력 성별등을 삭제하고▲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민원신청서에기재토록했으며▲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신청등 일정한 서식이없는 민원을 규격화하여새로운 서식으로 만드는것등이다.

이에따라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의 경우 신청서의 14가지 기재사항중 본적 생년월일 분실일시 장소 보증인의 주민등록 번호등 6개항목을 삭제하고 8개항목만 기재토록하고 영세민 사실확인서도 14개기재사항중 5개항목이 삭제된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치기배, 百貨店서殺人

유리門깨 警備員찔러

20代타일工 검거

29일하오6시45분께 서울中區南大門路2街 미도파백화점1층 복도에서 소매치기하다 붙잡혀 경비실로 끌려가던 李錫現씨(22·타일공·서울江西區新亭洞396)가 백화점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깨 유리조각으로 경비원朴聖基씨(44·서울龍山區漢南洞257의1)의 허리를 찔러 숨지게했다.

李씨는 朴씨가 쓰러지자 5백m떨어진 롯데백화점후문까지 달아나다 백화점경비원金海成씨(45)와 순찰중인 朴世準순경(35·小公파출소소속)에게붙잡혔다.

李씨는 이날 미도파백화점에서 尹美暎양(20·서울冠岳區奉天3洞)의 핸드백에서 현금9만원을 털었으나 尹양이 『돈을 돌려달라』며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사이 숨진 朴씨등 경비원2명에게붙잡혔었다.

지난7월20일 春川교도소에서 특수절도죄로 1년6월을 복역한뒤 출소, 타일공으로 일해온 李씨는 경찰에서 『애인과 동거하다 생활비가 쪼들려 범행했다』고 말했다.

불장난에 둘燒死

富川서…성냥불에 이불引火

【富川】30일상오11시께 富川市古康洞산67축산단지내 원숭구씨(67)집안방에서 불이나 방안에서잠자던 원씨의 손자재훈군(2)과 재훈군의 동생인 생후2개월된 갓난아이등 2명이불에타숨졌다.

이날불은 원씨와 원씨의처 김정규여인(55)이 이웃에 놀러간사이 재훈군의형 재영군(4)이 친구와 성냥불장난을하다 방바닥에 깔려있던 캐시밀론이불에 인화돼 일어났다. 【聯合】

鑛夫, TNT로自殺

【店村】30일 새벽2시 20분께 경북聞慶郡店村邑 모전4리55의12 전두선씨(34·발전대성광업소광부)가 가정불화를비관, 자기집 골목길에서 폭약인 TNT를 터뜨려 자살했다. 【聯合】

두辯護士 停職처분

4~6개월씩…브로커·前科者채용

법무부는 30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裵命仁법무장관)를 열고 朴容采변호사(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와 朴武洪변호사(부산변호사회소속)등 2명에 대해 각각 정직6개월과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의하면 朴容采변호사는 브로커들을고용, 50여건의 관산사고를 수임해 왔고 朴武洪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에 등록되지않은 전과자를 사무원으로 채용했다는것이다.

초순 추운날씨…16일高入선발考査

마지막 달, 7일 大雪·22일 冬至

세모(歲暮)의달 12월이 시작됐다. 이달에는 대입학력고사(2일)와 고입선발고사(16일)가 실시되며 大雪(7일)과 冬至(22일)등이 끼어 있어 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부리는 달이기도하다.

중앙기상대는 이달 상순께 2차례의 기압골통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하겠고 중순께는 예년기온을 회복하는 한편 이동성고기압의영향으로 비교적 맑은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대입학력고사가 실시되는 2일은 맑은후 가끔흐리겠고 서울·中部지방의 기온은 예년과비슷한 2~7도의 분포를보이겠다.

12월의 메모

▲2일=대입학력고사
▲7일=大雪
▲10일=세계인권선언일
▲16일=고입선발고사
▲22일=冬至
▲25=성탄절

일반酬價기준 마련

夜間당직 專門醫도

보사부는 30일 병·의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못하는 일반환자에 대해 보험환자에 비해 최고 3배나 되는 과다한 진료비를 받는행위를 막기위해 일반수가의 기준을 정해 일정한도이상의 진료비를 못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에서 멋대로 받는 영안실사용료도 시도지사의 고시가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수련의들이 모두 맡고있는 종합병원의 야간당직의사중에 전문의를 포함시키도록 각의료기관에 지시했다.

朴永復피고인 12년宣告

서울高法, 피고·검찰抗訴기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金承鎭부장판사)는 30일 형집행정지기간중 또 사기극을 벌여 구속기소된 전金塵통상대표 朴永復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대로 징역1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朴피고인의사기범행에 가담한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0명의 관련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2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까지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추어 선고했다.

朴피고인은 지난74년의 은행부정대출사건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30억원상당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2월 다시 구속기소됐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같다.

▲成基彦(47·전신용보증기금大邱지점장)=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4백만원▲林泰鉉(60)=징역2년▲崔載永(58·무직)=〃2년▲申東焰(46·무직)=〃1년6월▲曺章年(38·朴피고인의운전사)=〃1년6월〃3년▲洪性鐸(39·무직)=〃1년6월〃3년▲李德順(51·요정주인)=〃1년〃2년▲金斗贊(48·요정종업원)=〃1년〃2년▲鄭基成(63·인장업)=〃1년〃2년▲朴昌默(40·무직)=〃1년〃2년

집보던남매藥먹여

4천원턴女人영장

1명重態

【富川】경기 富川경찰서는 30일 집을보던 어린남매에게 신경안정제를탄 유산균음료를 먹인뒤 금품을턴 채정주씨(26·여·전과2범·경기富川市遠美洞98)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채씨는 지난29일 상오10시께 富川市遠美洞144의14 朴명석씨(37)집에 들어가 朴씨의 장남 철군(7)과 차녀 미라양(5)남매에게 『엄마 친구인데 맛있는 것을 주겠다』며 유산균음료에 신경안정제를 섞어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뒤 장롱속에있던 현금4천원을 훔쳤었다.

채여인이준 유산균음료를 마신 남매중 철군은 깨어났으나 미라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聯合】

死亡·실종자 8명

남해안海溢…선박4백여척 파손

【光州·釜山·浦項】서해중부해상을 제외한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지난28, 29일 이틀동안 남해안일대에 심한 돌풍과 해일이일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 18명이 중경상을입는 인명피해를 냈으며 4백여척의 각종선박이 파손돼 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전남해안지방에는 파고5~6m의 돌풍과함께 평균75.4㎜의 비가 내려 莞島지방에서 대피중이던 2백12척의 선박이 전파 또는 반파돼 3억3천6백만원의 가장많은 재산피해를 냈으며 高興·麗川·麗水등의 인근해역에서 모두 3백83척의 선박이 파손돼 5억8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돌풍으로 29일상오 6시께 莞島郡蘆花邑中楠里 선착장으로부터 5백m해상에 정박중이던 선박을 인양키위해 채취선을 타고가던 이마을 金忠씨(40)가 파도에 밀려 배가 전복, 익사했으며 상오9시께는 高興郡蓬萊面 外羅老島앞 해상에서 경남 統營郡선적 天鳥호(17톤·선장 鄭龍模·47)가 심한 풍랑으로 침몰, 배에 타고있던 선장鄭씨등 선원6명이 실종됐다.

또 이날상오 10시10분께에도 高興郡蓬萊面 內羅老島 동쪽2마일 해상에서 대피중이던 경남 三千浦市선적 제7종성호(6·8톤)가 심한 풍랑으로 침몰, 선원 金종구씨(27)가 실종됐다. 【聯合】

自動車월부금받아 入金않고횡령

【釜山】부산시경은 30일 자동차월부 대금을 가로챈 아세아자동차 부산지점 업무사원 정재관씨(43·釜山鎭區전포동33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업무사원 김원종씨(3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8월사이 아세아 자동차측이 시내10개 회사에 월부로 출고한 20대에 대한 월부금 1천8백만원을 수금해 회사에 납부치 않고 횡령한 혐의이고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1백만원을 가로챈혐의다. 【聯合】

誤解

가난한敎會의 가난한牧師 鄭潤五씨

한때 「殺人용의자」…"信心위한 試鍊"

鄭潤五씨(40·사진)는 조그만교회의 목사다. 자신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다. 종합상사처럼 단기간내에 공룡처럼 커졌다는 유명한 교회들과는 거리가 먼곳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신심(信心)은 조그만큼도 가난치가 않다.

그런 鄭목사가 어느날 경남梁山의 모 기도원에있다가 부인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에는 전방의 군부대위문행이 인연이돼 알게됐던 서울敎岩국교 교감부인 崔玉珠씨(49)가 강도에게 피살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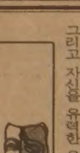
그리고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이 찾고 있다는 내용도 곁에 써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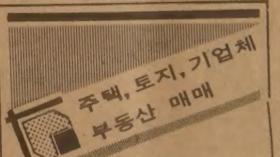
형사가 찾아왔을때 부인이 「빛독촉」과 관계가 있는것으로 착각, 적당히 둘러 댄것이 화근이 된모양이었다. 鄭씨는 기가 막혔다.

사건당일(9월6일) 그는 경기도 漣川에 있는 수양관의 지붕을 하루종일 고쳤다. 그 알리바이는 슬레이트10장을 내준 이웃 金모씨(41)가 증인일 터였다. 그가 서울에 갔던것은 사건발생 5일전이었고 숨진 崔씨를 마지막 만난것도 80년께 였다. 그는 경찰에 출두,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섭지자가 세속인처럼 무고하다는걸 얘기하고 다닌다는 일을 생각할수가 없었다.

그냥 梁山에 눌러앉아 崔씨를 위해 기도를 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事必歸正이 되겠지하고 생각했다. 한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리는 보도까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친구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것이 계기가 돼 경찰은 「오해」를 풀게 됐다. 하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오해」가 풀린것을 알턱이 없었다. 鄭목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8세때 6·25로 부모를 잃고 머슴, 종업원, 행상등 안해본일이 없이 거칠게 살다가 군입대 무렵(63년)에 기독교에 귀의했다. 그뒤 신학을 공부, 목사가 되었고 월남파병시절 봉급을 모두 보내 현재의 교회도 지을수가 있었으며 제대후 이교회의 목사로 일해온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인데다가 세상살이 요령이 없는 목사는 교세확장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교회개축때 꾸어다 쓴돈 7백만원을 갚지못해 「사기죄」로까지 몰린일도 있다.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더욱 신심을 다지라는 시련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金宗來기자】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런던한인 청소년 문화의 밤

1982년을 보내면서 아래와 같이 런던 한인청소년문화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7시~9시
곳 : ALT HOUSE U. W. O
LONDON ONT.
주최 : 런던한인청소년
후원 : 런던한인회
토론토한인총영사관

호남향우회 연말잔치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는 세모의 계절 입니다.
향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괴로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을 세월속에 묻어 버리는 망년의 기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시 : 1982년12월18일(토) 오후7시
장소 : Ukranian Center (2층)
297 College St.(at Spadina)
회비 : 1인당 25불
※특별출현 : 인기가수 송대관
밴드 권순근과 그악단
사회 : 박상선(다년간 무대활동)

—연락처—
551-8835(장영대)
773-5531(강기원)
271-0166(송남섭)
255-4532(김병선)
677-1888(마보훈)
621-2059(송기선)

호남향우회 회장 장영대

인사 말씀

금번 임윤식씨께서 '온타리오 주정부 부동산 세일즈맨 면허를 획득하고, 본사에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본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은 능력있고, 성실한 세일즈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부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공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세일즈맨의 증원을 인사드립니다.

황용현 배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M3B 1Z3
TEL. (416) 449-8644, 8645(B), 266-1548(R)

테니스·복싱서 「무더기 金」 쏟아질까

권투 12個 전체급 메달圈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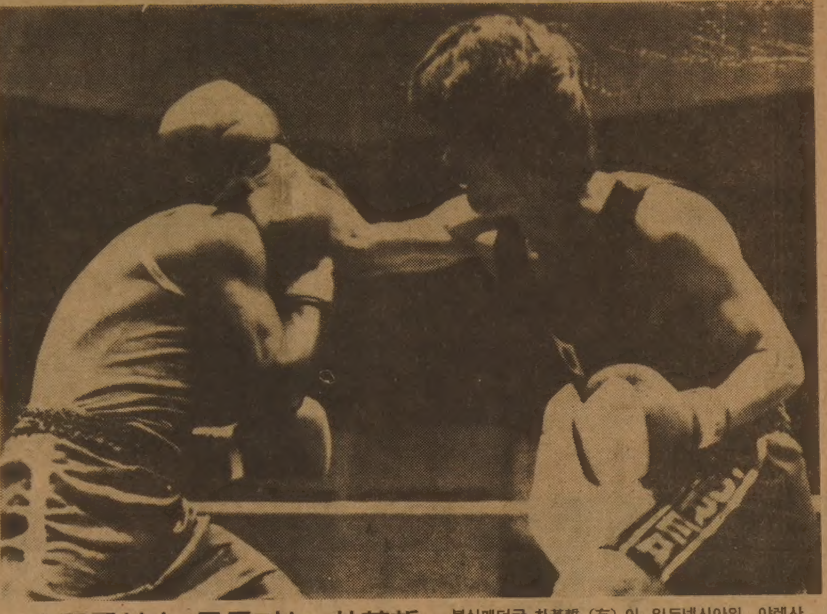
男子농구 日本꺾고 中共과 金다퉈

제9회 아시안게임 12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한국은 종합3위를 향해 힘찬 행진을 계속하고있다。 제9회 아시안게임 11일째인 29일 한국은 메달박스 복싱이 아시안게임 사상최초로 12개전체급에서 준결승에 진출, 최소한 12개의 銅메달을 확보했고 테니스 4개부문에서 결승에올라 호조를 보였다。 한국은 수영여자 4백m 혼계영에서 銅메달을 추가, 金13·銀19·銅23개로 메달레이스 3위를유지했다。 29일 벌어진 복싱 준준결승에서 朴基哲 (페더급) 金東吉 (라이트웰터급) 鄭鎔範 (웰터급) 李海正 (라이트미들급) 이 모두 승리, 메달박스의 저력을 보였다。

이날 남자농구결승리그 3차전에서 한국은 日本과 대접전끝에 91-90 1점차로 신승, 4연승 (예선포함)을 기록, 12월3일 中共과 金메달을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됐으며, 이날 시작된 배드민턴개인전 1회전 8게임중 7게임을 이겼다。 그러나 레슬링서는 유망주 孫甲道 (48kg급) 와 李淙永 (57kg급) 이 북한과 日本선수에 패해 3·4위권으로 밀려나 부진했다。 52kg급의 金鍾奎와 62kg급의 李正根은 사우디와 蒙古선수를 꺾고 3회전에 진출했으며 68kg급의 柳寅卓은 1패를안고 4회전에 올랐다。 北韓은 48kg급과 82kg급에서 2명이 결승에진출했다。

역도 무제한급에서는 시리아의 나자르가 토틀 3백60kg으로 우승, 시리아에 첫金메달을 안겨줬다。 남자하키에서 홈팀 印度는 日本을 6-2로 격파, 파키스탄과 오는 1일 金을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됐다。



◇印尼선수 두들기는 朴基哲 복싱페더급 朴基哲 (右) 이 인도네시아의 아레사토·차레스에게 라이트훅을연타, 일방적인 판정승을 거두었다。 【뉴델리29日】

복싱

한국복싱이 아시안게임사상최초로 12개전체급에서 銅메달을 확보했다。

북한은 라이트웰터급의 손찬선과 페더급의 여연식이 준준결승서 파키스탄과 네팔선수를 각각 판정과 KO로 물리쳐 이날까지 출전선수 9명중 2명이 탈락하고 7명이 4강전에 들었다。

한국의 간판스타 金東吉은 蒙古의 바트리베그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1회1분51초만에 RSC승을 거뒀으며, 웰터급의 鄭鎔範도 방글라데시의 호세인선수를 1회2분17초만에 KO로 제압했다。 라이트미들급의 李海正은 泰國의 사판에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올렸고 페더급의 朴基哲도 인도네시아의 차레스를 판정으로 눌렀다。

◇준준결승 ▲페더급 朴基哲 판정 차레스 (印尼) ▲라이트웰터급 金東吉 (한국) RSC 1회1분51초 바트리베그 (몽고) ▲웰터급 鄭鎔範 (한국) KO 1회2분17초 호세인 (방글라데시) ▲라이트미들급 李海正 판정 사판 (태국)

농구

한국남자농구팀은 日本과의 대전서 오까야마 (2m26)의 더블포스트작전에 말려 고전했으나 辛善宇의 재치있는 플레이와 李忠熙, 朴守敎의 외곽슛으로 전반을 48-43으로 앞섰다。 후반들어 한국은 李珉鉉이 가세, 4분45초를 남기고 장신센터 오까야마를 5파울로 쫓아내는데 성공, 승리를 눈앞에 두는듯 했다。 그러나 日本의 추격을 받아 2분17초를 남기고 85-85로 타이를 이뤘다。

한 국 91 (43 48 / 47 43) 90 일 본

▲여자리그 중공 94-58 쿠웨이트 (4승) (2승2패) 중공 101-62 북한 (3승) (1승3패)

수영

한국은 수영 마지막경기여자혼계영 4백m에서 4분34초05로 동메달을 추가, 지금까지 수영에서 금3·은4·동7개를 획득했다。 한국팀은 먼저 배영에출전한 崔允喜가 선두를 지켰으나 평영의 權于賴과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 동메달에 그쳤다。 남자혼계영 4백m와 남자접영에서는 입상권에 들지못했다。

▲여자혼영 4백m ①일본 4분21초32 ②중공 4분32초46 ③한국 4분34초05

男핸드볼 쿠웨이트 눌러 銅메달

배드민턴 7게임 1회전서 勝利

레슬링 孫甲道·李淙永 金놓쳐

배드민턴

한국은 배드민턴개인전 첫날 1회전 7게임에서 승리를 거둬 호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남자복식 1회전에서 金炳植-李得春조와 朴柱奉-李恩求조는 日本의 강호 미야모리조와 泰國의 미사롱사리조를 각각 2-0으로 꺾었고 여자복식의 金練子·柳尙希조와 黃善愛·姜幸淑조는 세계랭킹선수조인 인도네시아의 베라와티-마야티조와 마르갈리-슈티아르티조를 역시 2-0 스트레이트로 각각 가볍게 눌렀다。 남자단식의 成漢國은 미노산 (스리랑카)을, 崔秉學은 사와이 (泰國)를 2-0으로 이겼고 여자단식의 金練子도 얀치 (인도네시아)를 2-0으로 눌렀다。

◇1회전 ▲남자단식 成漢國 (한국) 2-0 미노산 (스리랑카) 崔秉學 (한국) 2-0 사와이 (태국) ▲남자복식 朴柱奉·李恩求 (한국) 2-0 룽사리·민사롤 (태국) 金炳植·李得春 (한국) 2-0 미야모리·추지타 (일본) ▲여자단식 金練子 (한국) 2-0 얀치 (인도) 기따다 (일본) 2-1 宋恩周 (한국) ▲여자복식 黃善愛·姜幸淑 2-0 마르갈리·슈티아르티 金練子·柳尙希 (한국) 2-0 가마야티·베라와티 (인도) ▲혼합복식3회전 朴柱奉·姜幸淑 2 (15-10 15-10) 0 프라탑·산티 (네팔)

레슬링

레슬링은 의외로 부진했다。 자유형48kg급과 57kg급 경기에서 孫甲道 李淙永이 4위전으로 밀려나 金메달 획득이 어렵게 됐다。 48kg급의 孫甲道는 3차전에서 이스와르 (인도)를 5분15초만에 폴로 제압했으나 B조 결승전에서 북한의 金철환에게 판정으로 패해 4위전으로 밀려났으며 57kg급의 李淙永도 3연승을 거두고 4회전에 올라 金메달이 기대됐으나 日本의 도미야마에게 5분51초에 폴로 패해 3·4위전으로 떨어졌다。 68kg급의 柳寅卓은 3차전에서 하미르 (이란)에 판정승을 거두고 4회전에 올랐다。 52kg급의 金鍾奎는 2회전에서 카르니 (사우디)를 1분13초에 폴로 제압, 나갔으며 62kg급의 李正根도 B조 2회전서 아마르 (이란)를 판정으로 제압 3회전에 올랐다。

▲48kg급3·4회전 孫甲道 (한국) 폴 이스와르 (인도) 金철환 (북한) 판정 孫甲道 (한국) ▲57kg급4회전 도미야마 폴 李淙永 ▲52kg급2회전 金鍾奎 (한국) 폴 카르니 (사우디) ▲68kg급3회전 柳寅卓 (한국) 판정 하미르 (이란) ▲62kg급2회전 李正根 (한국) 판정 아마르 (이란) ▲82kg급3회전 분나미 (시리아) 판정 金泰雨 (한국)

◇메달중간집계 <30일 하오7시현재>

	金	銀	銅
①중공	48	39	28
②일본	44	41	29
③한국	14	19	24
④인도	11	10	12
⑤북한	9	15	14
⑥필리핀	2	2	7
⑦파키스탄	2	1	0
⑧印尼	1	2	7
⑨이란	1	2	2
⑩쿠웨이트	1	2	1
⑪몽고	1	2	0
⑫싱가포르	1	0	2
⑬말聯	1	0	1
⑭시리아	1	0	0
⑮태국	0	2	3
⑯레바논	0	1	0
⑰이라크	0	0	3
⑱홍콩	0	0	1
⑱바레인	0	0	1
⑱베트남	0	0	1

◇1일 한국경기 (한국시간)

▲육상
남 2백m결승 張在根 金相文 (5시30분)
여 〃 牟明姬 朴美善 (5시)

▲사격
자유권총 李元錫 金枝植 朴承麟 閔泳三 (1시)
스키트 개인및 단체 金基元 金榮日 金榮鎭 李承均 (1시)

▲테니스
남자복식결승 宋東煜 全英大-金春浩李우룡
여자단식 결승 金壽玉
남자단식 결승 金春浩 (30일 준결승리경우) (이상 2시30분)

▲복싱준결승
웰터급 鄭鎔範-인도
L미들급 李海正-파키스탄
미들급 李南儀-쿠웨이트
L헤비급 洪起鎬-이문용 (북한)
헤비급 蘇培元-인도
수퍼헤비급 金鉉乎-조봉길 (북한) (이상5시)

◇2m26cm 人間장대를 헤치고 남자농구 한국-日本경기에서 한국의 李忠熙가 키 2m26cm의 인간장대 오까야마의 골밑 방어를 뚫고 슛찬스를 노리고있다。 한국이 91-90으로 승리。 【신문공동취재단】

뉴델리 소식

예선탈락 蹴球선수 杜門不出

選手村에서 자숙

◆…의외의 패배로 예선서 탈락한 한국축구팀은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선수촌에서 두문불출 자숙하고 있다。 축구팀은 예선탈락후 여러 체육회임원들의 뒤로에도 불구하고 崔殷澤감독이 北韓-中共전에 한번 고개를 내밀었을뿐 일체 바깥출입을 않고있다。

中共, 종반들어 「日타도」에 먹구름

日 레슬링서 호조

◆…『아시안게임』사상 첫 종합우승을 노리고있는 中共은 경기중반 日本이 육상과 레슬링에서 호조를 보임에따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中共관영新華社통신은 29일 中共의 우승가능성이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고 배드민턴개인종목에서 5개의 金메달을 석권하고 대회마지막날 남녀배구결승전에서 승리해야만 『日本타도』가 실현될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렸다。

日선수水泳4冠王

◆…日本여자수영선수로 아시안게임에 나온 야나세·가오리양 (15) 은 여자 자유형 1백, 2백m와 혼계영 4백m, 계영 4백m에서 금메달을 차지, 4관왕이되면서 아시아최고의 여자수영선수임을 확인。 日本 사이따마縣 와라비중학생인 야나세양은 특히 자유형1백m에서 58초62를 기록,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분벽을 깨뜨렸는데 『다음에는 57초선을 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開幕日에 아들얻어

◆…제9회아시안게임개막일인 지난19일 아들을 낳은 印度부인은 아시안게임심벌로 사용되고있는 아기코끼리의 이름을따서 이름을 아푸로 지었다。

각국選手 5천여명 告別 댄스파티

이별의 아쉬움달래

◆…뉴델리 아시안게임폐막인 오는12월4일 선수촌에서는 5천여명의 각국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야외고별 댄스파티가 화려한 불빛속에서 열려 이별의 아쉬움을 달랜다。

선수촌에 쇠고기 공급한다고 항의

10日부터 육상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있는 한국·日本·말레이지아·태국·싱가포르·印度등6개국육상선수들은 아시안게임폐막과 함께 봄베이市로직행, 오는12월10일 개막되는 제1회6개국육상대회에 참가한다。

스포츠外交 활발

◆…한국은 아시안게임기간중 열린 9개아시아경기연맹회의에서 체조만을 제외한 8개종목에서 회장또는 부회장에 피선됐다。 30일현재 金政宇승마협회부회장이 아시아연맹회장으로 피선된것을 비롯, 요트의 金澈鎬회장, 하키 申基秀회장, 배드민턴 劉珍均회장, 역도 趙容時회장, 궁도 朴俊求 부회장, 수영 李明博회장등이 각각 아시아연맹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무로후시 4連覇

◆…日本의 투해머선수인 무로후시 (38) 가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를 달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66년 방콕대회에 첫출전, 銀메달을 따낸 무로후시는 70년 방콕, 74년테헤란, 78년 방콕에 이어 이번대회에서도 71m14의 대회신기록으로 다시 우승, 불패의 철인으로 각광을 받았다。 14세때 넓이뛰기를 시작, 17세때 투해머로 바꾼 무로후시는 20여년간의 선수생활중 아시아게임기록을 3번, 日本국내기록을 6번이나 경신했으며 현재 75m20의 아시아최고기록을 보유하고있다。 루마니아 투창선수출신인 부인 세리피나와는 72년 뮌헨올림픽서 만나 결혼으로 골인, 2명의 자녀를 두고있는데 부인도현재 中京大의투창코치로있다。 현재 나고야의 中京大 체육과 조교수로 있는 그는 경력도 다양해 자서전을 펴내는등 또다른 독특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이번대회 우승후 선수촌에서 잠적, 루마니아태생부인과 조용히 자축하고 있다는 소문。

힌두교도 단식투쟁

◆…쇠고기를 먹지않는 나라에서 예상되던 파란이 드디어 표면화했다。 이곳 선수촌은 힌두교의 교리에 따라 쇠고기를 공급하지 않았으나 인도선수단을 제외한 참가국 전선수들이 모두 쇠고기를 원하는 바람에 쇠고기를 수입, 선수들에게 공급해 왔는데 대회폐막 4일을 앞둔 29일 힌두종교단체들이 들고일어나 하루한끼의 단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힌두교의 전통을 간단히 무시한 처사라는 항의문을 수상과 부타·싱체육상및 선수촌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쇠고기 공급을 중지하지 않으면 오는 12월2일부터 4일사이에 의사당 주변에서 항의데모를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선수촌은 아직 쇠고기 급식을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신문공동취재단】

◇단거리호프 張在根의 힘찬스타트 육상단거리 호프 張在根이 2백m레이스서 힘찬 스타트를 하고있다。 【신문공동취재단】

金喆鎬 6회 KO敗

오로노에 일방적으로 맞아

金喆鎬마저 무력하게 KO패 당했다。 28일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복싱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金喆鎬는 베네수엘라의 도전자 라파엘·오로노 (24)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맞아 6회38초만에 KO패,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金喆鎬는 22개월만에 왕좌에서 물러났으며 한국프로복싱은 하나뿐이던 세계챔피언 자리를 잃었다。

5회까지 채점은 마이크·재이콥스 (영국), 헤르멘·베르티니 (이탈리아) 등 3명의 부심 모두 1회부터 4회까지 10-9, 10-8 (5회)로 오로노 우세였다。 오로노는 4회까지 긴리치를 이용, 쭉쭉 뻗어치는 레프트잽으로 우세를 잡아 나가다가 5회서 무쇠와같은 라이트훅과 연타로 金喆鎬를 녹다운시켰다。 그로기 상태에서 간신히 일어난 金喆鎬가 5회에서 침몰당하지 않고 버틴 것은 경기시간을 재는 타임키퍼가 고의로 41초나 빨리 라운드 종료공을 울렸기 때문이었다。 타이틀을 날리고 경기운영에서도 망신을 당했다。 金은 6회들어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맞고 또다시 다운, 오르테가 주심은 카운트없이 오로노의 승리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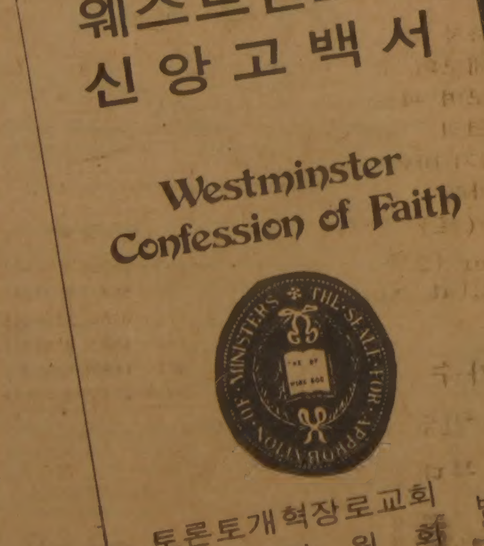
梁正圭회장 辭意

한국권투위원회 (KBC) 梁正圭회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梁회장은 『올들어 한국프로복싱이 세계타이틀 도전에서 연달아 실패한데다 金得九가 참변을 당하고 金喆鎬마저 타이틀을 잃는등 책임을 통감, 5년간 지켜온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출 판 위 원 회 번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1647년에 제정, 채택된 스코트랜드교회의 공개신앙고백 개혁신앙의 정수, 전통적 기독교신앙의 근간, 성경전체가 가르치는 바 총개요

● 알기쉬운 우리말 번역, 편리하게 배열되고 본문과 정확히 대조된 성경주석
● 간편한 포켓북 사이즈, 총92페이지
● 저렴한 가격 $3.00(송료포함)

다음 장소에서 절찬 판매중!!
한밭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삼복식품, 종교서관

주문 구입하실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Money Order 또는 Check 동봉) 하십시요.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ch
P.O. Box 2603, STATION "F"
Scarborough, Ontario Canada, M1N 3P2
전화문의 : (416)498-0241 · (416)492-9889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예배시간 : 2 : 00PM
예배장소 : 1355 Warden Ave.
(South of Elsemere Rd.)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豫算 1,003億 삭감

국회豫決委、총규모 10兆4千167億원 통과

防衛費 3백23억 처음깎아

國債는 2천33억 감축

올보다 8·8% 증가·原案보다 0·9%적어

◇새해豫算 調整內譯 <단위 억원▼는삭감>

歲入		歲出	
정부案	105,170	정부案	105,170
①稅收純增	1,030	①削減部門	▼1,335
法人稅	542	방위비	▼323
附價稅	356	國債관련경비	▼76
防衛稅	253	출자금및출연금	▼226
所得稅	▼109	연불수출이차보전	▼238
特消稅	▼11	交付金조정	▼195
②國債發行	▼2,033	기타	▼277
(발행총액3,467)		②增額部門	332
		地方交付金	103
		교원호봉격차해소	97
		기타	132
①+②	▼1,003	①+②	▼1,003
修正된規模	104,167	修正된規模	104,167

◇29일상오 열린 국회豫決委에서 鄭在哲위원장이 정부안에서 1천3억원이 삭감된 새해예산안의 통과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들이고있다.

국회는 29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 10兆5천1백70억원 가운데 1천3억원을 삭감한 총규모 10兆4천1백67억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이예산안은 예산조정11人小委(위원장 崔洛誥의원)가 29일새벽까지 계속된 深夜절충에서 與野합의에 따라 마련된것으로 금년도 예산안보다는 8·8%(追更예산안대비11·8%)증가된것이며 정부원안보다는 0·96% 삭감된것이다.

豫決委는 이날 歲出부문에서 삭감된 1천3억원을 歲入부문의 國債발행규모축소에 充當하기로했는데 이에따라 내년도 國債발행액은 당초정부제출안인 5천5백억원에서 2천33억원(稅收증가분 1천30억원포함)을 축소한 3천4백67억원으로 감축했고, 방위비중 3백23억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다. 방위비의 감축은 81년도 GNP성장률 확정치가 당초推計 7·1%에서 6·4%로 0·7%포인트 축소됨에따라 취해진 異例的인 조치이다.

28일밤 예산조정小委의 막바지협상도중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李鍾贊총무、鄭在哲예결위원장과 金埈成부총리는 청와대를 방문, 방위비를포함해 1천3억원의 새해예산 삭감규모에대한 고위층의 재가를 받았다.

이날 의결된 세출부문의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豫決委部別심의에서의한 74억원 ▲방위비3백23억1천8백만원(국방부 3백12억1천8백만원、내무부 11억원) ▲국채발행 관련경비 76억9천4백만원 ▲출자금 1백70억원 ▲出捐金56억5백만원 ▲延拂수출利差보전 2백38억원 ▲기타경비 47억7천6백만원 ▲예비비 26억7천9백만원등이다.

出資金이 삭감된 기관은 ▲韓電50억 ▲産銀50억 ▲土開公50억 ▲조폐공사 20억원이며 出捐金은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 20억 ▲특정 연구개발 30억 ▲지역난방사업 6억5백만원등이다.

특별회계부문에선 ▲철도병원운영비 9억4천6백만원 ▲간호전투대 운영비 1천7백만 ▲식당운영비 8백만 ▲통신특별회계 예비비 2천만 ▲책임경영 도입연구 2천만 ▲통장예금기구입비 1천9백만 ▲편지쓰기운동 7천8백만원등 13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이날 통과된 새해예산안은 또 ▲教員號俸의 격차해소(97억원) ▲國史편찬위원회 史料館건립(9억6천만원) ▲IPU총회준비경비(12억2천7백만원) ▲해외동포문제연구소경비(1천8백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키로했다.

한편 稅收의증가로 자동적으로 증액된 ▲지방교부금 1백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91억원등 1백94억원은 ▲지방교起債상환 1백58억 ▲교육재정특별교부금33억 ▲대학시설비3억1천8백만원과 相殺토록 조정했다.

레이건、中南美 登程

4國巡訪 포클랜드戰때 잃었던信賴 회복모색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AP=聯】레이건美대통령은 미주국가들과의 정치·경제유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30일 5일간의 中南美4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레이건대통령은 브라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온두라스를 방문하면서 미국이 대중남미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또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영국을 지지함으로써 잃은 中南美 여러나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레이건대통령의 中南美순방중엔 인권문제와 군원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쿠바와 소련의 中南美침투에 대항하고 지역국가간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주국가간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라크 勞動社會相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9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라크의 바키르·마무드·라숨勞動社會省장관을 접견하고 修交勳章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鄭漢株노동、朴贊鉉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金메달선수에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8일 아시아경기대회 역도와 사이클로드로경기에서 각각 金메달을 차지한 安孝爵、安智榮、朴世龍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치하했다.

새마을指導者·淨化委겸직 4천여명

切半정도 겸직해제

金淨化委長 밝혀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은 29일 국회운영위에서 『새마을지도자 4천4백여명이 사회정화위원을 겸직하고있다』고 말하고 『그중 50%의 人員에 대해 겸직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道단위이상의 정화위원 7백10명을 심사한결과 90명정도가 不適格者로 발견됐기때문에 이들에대한 교체작업이 현재 은밀하게 추진되고있다』면서 『道단위가정비되면 그下部조직에대한 정비작업도 곧 잇달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國旗 규격맞도록

金總理지시

金相浹국무총리는 29일 일선기관등 일부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규격이 미달되는 國旗나 퇴색된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高揚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국기를제작할때는 국기제작법의 규정에따라 표준규격을 지키고 ▲퇴색되지않은 국기를게양하되 게양하는국기는 2호기(세로1백40㎝、가로2백10㎝)이상의 大型국기를 사용하며 ▲깃대는 屋上의경우 5m이상、지상에선 10m이상으로 높게하며 ▲깃봉은 무궁화 봉오리와 꽃받침5편이 뚜렷이 표시된 것으로 금색이 변색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또 행사에 쓰는 手旗는 사용후 즉시 회수、소각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金總理 南美순방 3黨대표에 설명

金相浹국무총리는 29일하오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柳致松民韓黨총재、金鍾哲국민당총재등 3黨대표를 서울플라자호텔로 초청、만찬을 함께하며 자신의 南美3개국 巡訪에관해 설명했다.

아시안게임…한국 金메달13개로 印度제치고 3位固守

역도 安孝爵·安智榮 사이클 朴世龍

黃金주말… 金셋 追加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황금의 일요일이었다. 한국선수단은 제9회 아시안게임 10일째인 28일 安孝爵(역도 1백10㎏)과 朴世龍(사이클·1백85㎞도로경기)이 金메달 2개를 따내 전날 安智榮(역도 1백㎏)의 金메달 1개를 포함하여 총13개의 金메달을 획득、메달레이스에서 3위를 고수했다.

또 이날 朴鍾吉(사격)과 張在根(육상)은 속사권총 개인전과 남자1백m결승전서 각각 銀메달을 획득했고 사격속사권총 단체전에서는 총2천3백26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기쁨의 咆哮 역도 1백10㎏급에서 총3백50㎏을들어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安孝爵이 기쁨의 환성을 터뜨리고 있다.【뉴델리 신문공동취재단=聯】

15개改正·同意案 통과

국회 本會議

국회는 29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비롯、13개 개정법률안및 한국과 뉴질랜드정부간의 二重課稅회피와 脫稅방지협약 비준동의안등 2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運營委는 이날 상오 국회법개정안심사小委로부터 그동안의 小委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된 법률안과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執達官법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年金法〃 ▲조달기금법〃 ▲주식배당 보장에관한법률폐지법안 ▲기상업무법개정안 ▲군인年金法〃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국가有功者등 특별원호법〃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정부간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濠洲정부간〃

豫算 만장일치통과

民正·국민歡迎聲明

民正黨과 국민당은 29일 국회豫決委에서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각각발표했다.

▲民正黨 金鍾浩대변인=與野가 黨利黨略을 초월, 대화정치로 예산안을 성립시키게 된것은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 다행으로생각한다. 전천재정을 이룩하기위해 방위비삭감에 동의한 집권당의 탄력성있는 자세와 稅率인상에 합의해준 상대당의 합리성은 높이평가되어야 할것이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국민들의 세부담을 많이 경감시키지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국가경제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黨이 주장한 삭감요구액 가까운선에서 3黨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처리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방비예산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삭감키로 한것은 예산심의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

朴完奎·李載根의원 資格정지 3개월씩

民韓 黨紀委

(활동은 계속할수 있다)

民韓黨은 29일하오 중앙당기위(위원장 朴炳一의원)전체회의를 열고 지난22일에있었던 의원 폭력사건과 관련, 해당 당사자인 朴完奎의원과 李載根의원에게 각각 資格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한편 民韓黨은 30일 당무회의에서 이문제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무회의에서 징계를 追認할경우 두 의원은 자격정지기간동안 당원자격은 상실하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할수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03-2361

地平線

사람이 「기록」을 깨뜨리는데 관심을 갖게된 것은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오래된것은 아니다. 대체로 19세기말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적인 관심이 됐다고한다. 모든 것을 숫자로 나타내고, 순서를 매기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현상이다. 「기록」에 대한 경쟁은 그뒤 인간의 모든 분야에 재빨리 번져 갔다.

▼세계의 「기록」만을 모은 기네스 기록집이 처음 나온 것은 1955년이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23개국어로 번역돼 4천만부가 팔리는 화제의 베스트셀러다. 그만큼 이제는 「죽음」을 빼고는 모든것이 경쟁의 대상이다. 『오직 인간만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것 이상의 기록경쟁을 하는 동물』이라고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크·트리페트는 말하고있다.

▼수영이 스포츠의 경기로 관심을 갖게된 것은 19세기후반 영국에서 였다한다. 중세때 유럽에서는 밖에서 수영을하면 전염병에 옮는다는 미신이퍼져 거의 수영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1869년 영국에 아마추어 수영협회가 조직된뒤 1908년엔 런던에 국제수영연맹이 창설되고 올림픽에도 채택됐다. 이때 경영종목은 자유형、배영、평영의 세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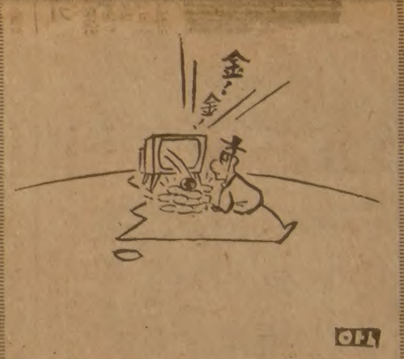
▼10대의 언니·동생이 나란히 뉴델리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각각 3개씩 따냈다. 15세의 동생 최윤희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거둔 「3관왕」이다. 지난4월 배영 1백m와 2백m에서 언니의 기록을 깨뜨린 뒤 배영에서 6차례나, 개인 혼영에서 2차례 한국기록을 고쳐놨다한다. 이번 3개의 금메달도 모두 아시안게임 신기록이다.

▼애초에 수영에서는 금메달 1개가 목표였다. 그러던 것이 최윤희의 기적으로 3개가 됐다. 수영에다 댄다면 사격과 궁도는 기대에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이다. 사격에서는 5개나 기대됐던게 겨우 2개로 그쳤다. 궁도는 남녀 각각 2개를 기대했지만, 모두 하나로 그쳤다. 최윤희의 금메달 3개로 겨우 구멍을 땜질한 셈이 된 것이다.

▼사이클의 박세룡도 뜻밖의 스타가 됐다. 그는 말하자면 행운의 스타였다. 대표선수의 부상으로 막판에 선수단에 합류했고, 똑같은 이유로 막판에 레이스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깨뜨리는 스타는 이렇게 기적처럼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것 같다. 그러나 길득구의 비극과, 김철호의 KO패로 침울한 프로권투에서 보는것처럼 스포츠에 기적은 없다고 단언할수 있다.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대중적 저변확대만이 확실한 기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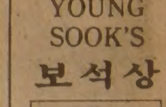
★독립기념관誠金 오늘쉽니다.

社会漫評



多多益善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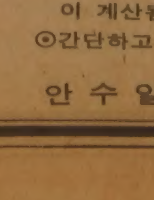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성경통신교육
비교파적·체계적 교육
●교과과정 : 보통과·연구과·대학과
●신청대상 : 남녀노소 제한없음
●신청주소 : B.C.C.
P.O.BOX 17638
L.A., CA. 90017
●사 무 실 : 1830 W. 8th St., #103, L.A.
●전 화 : (213) 387-8669
※ 책대금, 학비 무료
성경통신교육원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822 The Queensway
(Queensway x Islington)

작은 비즈네스를 위해 크고 비싼 계산기가 필요없읍니다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작고 값이 싼 파나소닉 제품
⊙세금을 따로 쳐울 필요없이 계산됨.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
안수일 252-7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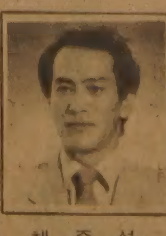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외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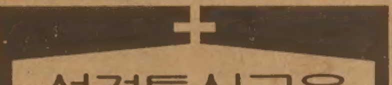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不動産투기 예방… 住宅정책 세미나

"稅制부터 단순化해야"

빈번한 改革은 投機심리만 助長

"公共주택 長期무주택자에 優先분양 이사때는 집返納·賃貸주택 債券발행"

건설부는 앞으로 住公,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선매청약 가입자중에서도 장기무주택자 순으로 분양우선권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월로 된 국민주택전매제한기간을 서울지역에 한해서는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30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주택정책세미나에서 金報根건설부주택국장은 공공주택에대한 전매,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건설부가 이같은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金국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을 무조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분양 해온결과 주민등록만 임시로 옮겨 하루아침에 무주택자로 위장, 분양받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무주택자라도 선매청약예금 가입시기를 따져 장기무주택자순으로 분양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국장은 또 국민주택반납제를 신설,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했다가 이사갈 경우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당초분양기관에 반납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국장은 0순위제폐지를 포함한 현행 민영주택청약제도의 조정문제는 검토중에있으나 기득권자보호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장기적인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매를 조장하는 민영주택의 분양과 입주시기의 단축문제, 분양가격을 층별, 위치별로 차등적용하는 문제 및 복덕방허가제문제등도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날 공청회서 분양가격의 자율화 또는 실세화방안, 이에따른 차액 활용문제등을 주택공급질서 정비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주택공급및 분양제도개선」 「주택거래및유통질서확립」 「주택관련稅制보완문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등 4개분과별로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金報根건설부주택국장= 최근 서울일부지역에 투기가 일어 주택공급질서가 어지러워진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서울에도 금년중 미분양주택이 1천6백호나 된다. 주택수급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투기는 開浦, 狎鷗亭, 果川등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나 의식적차원에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실수요자의 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고려, 일부지역이라도 단속의 필요가있다.

투기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통화량증가, 금리인하, 실질소득증가등 경제구조적요인에다 주택매매나 보유에따라 과대이윤이 발생하는 사회·경제여건때문이다. 여기다 가격적획일화와 일부소개업자의 가격조작이 가세한때문이다.

투기의 물리적규제·단속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우선악덕소개업자와 상습전매자를 단속하는것인데 이것도 부분적해결책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공공주택에 관련한 전매, 투기행위는 특히 적극적으로 규제, 단속할방침으로 1천만원이하 벌금, 환매등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공주택입주관리를 강화, 앞으로계약서에상시전매여부 조사에 응할의무등을 넣도록 하고 각서를 받도록 하는한편 입주때는 경찰관 입회확인제도 실시도 검토하고있다.

특정지역고시문제는 투기이후에 고시한는게 사후적방법이므로 앞으로 신중히 대처할 생각이다.

유통공급질서정비를 위해서 현재 복덕방허가제가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있다.

공공주택에대한 청약제도를 일부고쳐 장기무주택자에게 분양우선권을 주도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불이익문제와 장기무주택자의 전매우려가 있어 신중히 대처하겠다.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문제는 지금도 단속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서울지역에 한해 현행6개월을 1년으로 늘려 철저히 시행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에대해 공개념을 도입한 국민주택의 반납제등 장기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0순위제 폐지를 포함한 민영주택청약제도조정도 검토하겠다. 다만 0순위폐지에따른 기합부기득권자인정방안등 대책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의 보완과 부작용에대한 대책도필요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영주택분양시기조정문제는 현재 등록업자20% 지정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토록 돼있어 분양에서 입주시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있다.

공정의 어느수준에서 분양을 허용하는것이 타당한가는 기업의 자금능력을 감안, 조정토록할 방침이다.

▲金海瀬씨 (한국이오나이저理事)=건설부가 주택건설에관한 장·단기계획을 사전에 발표해야한다.

건설회사들은 단기적으로 공급계획을 위치, 평수, 가격, 예정기간등을 공고하게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되도록 규정하고 대규모단지 건설계획을 공식발표, 고시해 집없는 서민에 꿈을주도록해야한다.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화보다는 인하해야하고 이를위해 토지의 저렴한 개발공급, 민간업체에대한 공공부문과 같은 지원대책이 따라야한다.

10년후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임대주택채권(가칭)발행등으로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활용하는방안도 검토할만하다.

취득세2%, 등록세3%의 부과기준을 분양가기준에서 내무부고시가격으로 수정, 통일해야한다.

청약순위폐지는 부당하며 꼭 없애야한다면 현재상태에서 청약예금가입을 동결하고 가입날짜순으로 우선권을 주어야한다.

▲車斗欉교수(서울大)=부동산 관련稅制가 너무복잡하다. 또 빈번한 세제개혁은투기조장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만을 초래한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 그리고 고정화시켜 기대변화의 안정화로 투기심리를막고 시장의 안정을 기해야한다.

현행 부동산관련 稅制는 취득하는데 5가지(취득, 등록, 인지, 상속, 증여세), 보유하는데 3가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양도 또는 공급하는데 3가지(양도소득, 법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여기다 부가세로 방위세가 따로 있고 건축허가수수료, 등기때 국민주택채권매입등 세외부담까지 따른다.

뿐만아니라 각종세율과 적용대상의 변경이 너무 잦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이때문에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져 투기가 조장된다.

단순화된 세제, 일관성있는 적용과 시행이 아쉽다.

▲安果淳씨 (雙龍종합건설 주택사업부장)=주택건설용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할때는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국민주택건설을 지금까지 보다 다른 차원에서 유도해야한다. 과세표준은 내무부싯가표준액으로 전면동일하고 미등기전매행위는 고세율의 적용으로 규제해야한다.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가 최초취득자가 되도록 취득시기를 조정(지방세법)하고 주택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주택건설업자의 보존등기의무를 철폐해야한다.

법인이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최초입주자의 등록세, 취득세등 과세표준은 내무부싯가표준으로 통일하고 세율도 인하조정해야 한다.

또 소득세법상 1가구2주택규제의 점진적인 완화내지 철폐해야한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야한다.

▲李太敎씨 (부동산 평론가)=부동산 중개업을 공인중개사제도로 면허제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업보증금, 자격시험제도등을 통해 하자있는 거래에 책임을 지우고 관인계약서사용의 의무화로 세원포착, 전매투기 방지등을 기해야한다.

중개사제도는 궁극적으로 부동산판매 주식회사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소개업은 소개영업법에의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전국에3만2천여명의소개업자가난립해있다. 이들은 법의 미비를 틈타 중개업아닌부동산업, 사금융업을하면서 불황때는휴업, 호황때는투기에참여하고있다. 국민에게는 재산을 보호해주고 스스로는 존경받는 지위의 중개사제도는 조속히 실시돼야한다.

◇30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열린 주택정책공청회에서 현행 주택청약제도개선방안에대한 각계의견및 진지한 토론이있었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불붙은 東西 核논쟁

「브」死後… 레이건의 MX腹案은

내년 제네바軍縮협상겨냥 홍정

美의회否決땐 作戰차질

최근 미국의 새로운 핵미사일 배치문제로 東西 진영간뿐아니라 미국자체 내에서도 核논쟁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한지 12일만에 레이건 대통령은 향후 최대의 핵전략무기로 평가되는 MX신형 미사일 1백基를 와이오밍주의 사이엔시주변에「밀집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핵논쟁의 불씨가던져졌다.

한편 2일까지 4일동안 브뤼셀에서 열리고있는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추계국방상회의는 美蘇간의 제네바 군축협상이 내년말까지 타결되지 않을경우 내년12월부터 서유럽에 美製신형 크루즈미사일 4백64基와 퍼싱Ⅱ미사일 1백8基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재확인, 논쟁의 열기는 더욱 가열되고있다.

핵논쟁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이번은 브레즈네프사망에따른 소련의 새로운안드로포프체제등장과 함께 시작됐다는 점이 추목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군축문제를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한서방군사전문가는 지적하고있다.

안드로포프신임소련공산당서기장은 취임 첫연설에서 군축문제에대해 미국에 결코 양보하지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맞서 레이건대통령은 MX미사일 배치계획을 선언, 核무기경쟁에서 對蘇우위를 확보하는동시에 현재 난항중인 제네바군축협상에서 유리한고지를 확보하는 兩得전략을 폈다.

새로운 MX미사일 배치계획은 현재 미국의회, 언론뿐아니라 행정부내에서도 반론이 일어 좌초될지도 모를 위기에있다.

레이건대통령이 배경설명에서 밝힌 미국의 핵전력열세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따라서 MX미사일의배치강행은 소련의 무모한군비증강만을 자극해 東西간의 핵균형이 깨질우려가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있다.

또한 군사전문가들은 MX「밀집배치방식」이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소련미사일끼리 치고 받게하는 「동족상잔이론」에 근거로 하고있으나 실제로실험이 어려운 이런가상적인계획에 2백60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비용을 소비하는것은 무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일부에서는 레이건이 정말 당초계획대로 MX를 제작,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對蘇전략무기협상에서 흥정용으로 MX미사일 배치계획을 발표한것인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소련은 타스통신을 통해 레이건의 MX미사일배치 계획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고정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금지한 SALTⅡ(美蘇 2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 규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지난28일 리처드·펄美국무성차관보는소련이 이동식신형미사일인 SS16의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SALTⅡ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NATO국방상회담에서 NATO 동맹국들에게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배치강행입장을 밝히는한편 MX미사일배치계획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동맹국들은 미의회에서 3만명의 유럽주둔미군의 감축등 위협하는 의견이 나오자 그어느때보다도 유럽대륙의 방위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특히 와인버거장관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군간의 군사력균형에관한 보고서를 이번 회의에 제출하고 앞으로 소련이 배치할 계획을 갖고있는 SS21, SS22, SS23미사일이 東歐에 실전 배치됨으로써 도래할 위기를 경고했다.

이같은 서방측의 강력한 움직임에대해 소련은 29일 반관영 노보스티통신을 통해 서유럽에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그들의 군사태세를 「경계발사」 태세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것이라는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노보스티통신은 소련국경에 核미사일이 접근해올경우 소련도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한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사는 모스크바주재 서방통신사지국에 전문을 배포함으로써 對서방「경고문」성격을 보여줬다.

외교전문가들은 이같은 미소양진영간의 공방전이 내년말까지 계속될 예정인 제네바군축협상에서 상호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카드게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소양국은 서로 核무기배치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양보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서고 있지만 그때마다 꼭 『핵무기의 감축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소련은 현재 서유럽을 겨냥해 SS20 미사일 3백基를 배치해놓고 있다. 따라서 서독을위시한 구제국은 미사일을 철수하지않는한 어떠한 反核운동에도 불구하고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있다.

내년12월을 D데이로 잡고있는 미·소 核감축회담이 어느선에서 타협될는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美의회에서 심의중인 MX미사일생산·배치안이 만약에 부결될경우 레이건행정부는 對蘇작전에 큰차질을 빚게될 것이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유럽에서의 核우위란 잇점을 앞으로 있을 모든對美관계협상에서 소련에 보다유리한 카드로 이용할것이 확실하다. 제네바군축협상사에서 벌어지고있는 흥정으로서의 核논쟁은 내년까지 계속될것으로보인다. 【劉海豐기자】

◇東·西의 核배치논쟁이 불붙고 있는가운데 브뤼셀에서 열리고있는 NATO 국방상회담은 당초 예정대로 크루즈미사일㊧과 퍼싱Ⅱ미사일을 84년부터 유럽에 배치하는것을 재확인했다.

메아리

6·0R

金相浹총리는 최근 국기의존엄성을실추시키는사례가 없도록하라고지시했다.

때마침 뉴델리의 하늘에는 요즘 태극기가 펄럭나게 오르고 있다. 짓발이 안오를들 아시안게임에서 金메달을 하나씩 보태가는 감격이 이만큼 흐뭇하랴싶다.

우리 선수들이 善戰을 할때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오를때마다 응원석에서는 태극기가 물결친다. 이 깃발들이 누가 보아도 태극기임에는 틀림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태극기가 아니다. 각자 가진 깃발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규격이 안맞는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빛깔이 다른것이다. 태극기에 그려진 太極은 엄연히 赤色과 青色이 지만 하나 하나 갖다 대놓고 보면 제각각일것이라는 뜻이다. 저마다 다른 국기를 가지고 서야 아무리 힘차게 흔들어 댔자 그 국민적 合力의 크기가 半減이 된다.

태극기는 1949년 10월에 문교부 고시 제2호로 제작법이 확정 공포되었다. 이 제작법에는 太極의 빛깔이 「새빨간빛」(진홍색)과 「푸른빛」(아청색)으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赤色, 青色이라지만 赤色만 가지만해도 수십가지의다른 색깔이 있다. 이중 정확히 어느 赤色, 어느 青色이 우리 태극기의 색깔이냐에 대해 문교부고시 제2호는 언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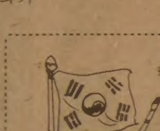
국내에는 태극기를 제작하는 군소업자가 헤아릴수없이 많다. 서울의 한 旗業社에 무슨기준으로 태극기의 赤·青色을 칠하느냐고 물었더니외부에서 나온 각국국기집에 그려진 태극기의 빛깔에 대충 맞춘다는 대답이었다. 맞춘다고는 하지만 천의 종류에 따라 같은 染料를 써도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것이다. 게다가 각 旗業社마다 기준으로 삼는 색깔이 다를테니 아시안 게임 응원석의 태극기가 각각일수밖에 없다.

色에는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모든 色을 다 부를수가 없어서 色마다 기호가 따로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것은 미국의 색체학자 먼셀이 만든 기호다. 무지개의 7색대신 赤·黄·綠·青·紫의 5색에 그 중간색들인 黄赤·黄綠·青綠·紫青·赤紫의 5색을 합쳐 10색을 環狀으로 나열하고 그 色相을 각각 20등분하여 2백개로 세분해 10색별로 부호를 달고 0·5단위로 번호를 붙인것이다. 가령 赤色은 0·5R에서 20·0R까지 있다.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수 있는 색이 1백70개가량이니까 이 기호로 커버가 된다. 그러나 色에는 色相외에 明暗의 차이에서 생기는 明度와 濃淡에서 오는 彩度가 있어서 이 3가지가 色의 3屬性이다. 明度와 彩度에 따라서도 색은 달라지기 때문에 色의 종류는 실로 수만가지가 되는 셈이고 明度와 彩度도 숫자로 구분하여 세상의 모든 색은 맨셀의 기호로 적을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면 태극기의 赤色과 青色은 기호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아무도 정한것이 없다. 東京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색채연구소가 유네스코를 통해 입수한각국 국기의 색깔을 측정했을때 태극기는 赤色이 7·5R(色相) 4·5(明度)/14(彩度)였고 青色은 9·0PB(紫青) 3·0/10이었다. 東京올림픽에서는 태극기가 이 색으로통일되었다. 그러나 이色相은 그때 우연히 일본손에 들어간 태극기의 색깔일뿐이지 태극기의 理想色인것은 아니다.

이色의 문제는 몇달전 이 欄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어느박람회장에서 태극기의 色相기호를 보내달라고하자 우리측에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한것인데 이것을 읽은 「컬러시대의 書像世界」라는 책의 저자인 金容勳씨는 곧 자기나름대로 태극기의 理想色을 찾아보았다. 국기의 색채구성은 한나라의 이미지이므로 품위있고 美麗한 색이라야하고, 聯想작용이나 기억효과가 뛰어난색이라야하고, 멀리서도판별하기쉬운 組合色이라야하고, 표준光源下에서 가장 효과적인 色彩感度라야하고, 또赤과 青의 配色은 明度差를 두어 효과를 얻어야한다는 여러가지점외에 染顔料에의한 表色기술의 문제등을 고려하여, 赤色은 6·0R(약간黄色쪽)5·0/14, 青色은 5·0PB(남색쪽)4·5/12가 적당하다는 試案을 내놓았다.

青綠의 구별도없이 한동도 푸르고 山도 푸른 色感의 나라라고해서 서울올림픽에서 우리가 五輪旗를 비롯한 각국국기를 우리식의 주먹구구빛깔로 만들어 달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주최국의 국기가 各色이어서는 안될것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헤엄못치는 오리 프랑스에 헤엄칠줄 모르는 오리가있어 話題. 救命튜브를 착용하고 水泳연습에 熱中하고있다. 【키스톤=聯】

가정쓰레기 有害

★印尼, 설사·寄生虫감염主犯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산업쓰레기보다 더 위험한 공해물질이라고 인도네시아의 파자자란대학생태연구소가 27일 보고.

同대학생태연구소 소장인 오토·수마르오토박사는 이날 西자바州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가정쓰레기가 매년 6백만명이상의 인도네시아人을 괴롭히고 있는 설사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뿐아니라 인도네시아어린이의 60%에 기생충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둥=안타라】

海外토픽

키신저·헤이그最高

★1회講演料 1~2만弗

헨리·키신저, 알렉산더·헤이그등 2명의 전 미국무장관은 강연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있으며 1회강연료가 약1만~2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보스턴·글러브지에 따르면 또 지미·카터 전 대통령도 단한번의 연설로 전 미국무장관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받았는데제럴드·포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카터 전대통령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연설에 1만3천~2만달러의 수입을 올린다는것. 【보스턴=CNA】

盲人에 책읽어주는 로보트

日서開發 "點字法 배울필요없다"

일본전신전화공사(NTT)는 최근 맹인에게 가날픈 여성목소리로 책을 읽어줄수있는로보트와 섬세한 손가락으로 책장을 자유자재로 넘길수있는 로보트를개발, 29일 일반인에게 첫선을 보였다.

NTT는 요꼬스까에 있는 부속 전기통신연구소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이들 2가지 로보트를 출품.

TNT의 한 대변인은 이들 로보트가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맹인들은 점자법을 배울필요가 없을뿐만아니라 전화를 통해 알고싶은 정보를 로보트가전해주는 자동응답서비스 체제까지 갖추게 된다고 자랑이대단.

NTT는 그러나 이들 로보트의 시판시기는 발표하지 않았다. 【東京=UPI】

당선인사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성년이 된 한인이민사의 결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역대회장단및 임원, 그리고 이사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힘입어 우리 한인회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명실공히 교민의 의사가 집약된 한인회가 되기 까지에는 인화및 경제적인면에서도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 또한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합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이땅에 우리가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이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상적인 한인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절대로 늦출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 평소 저회들의 소신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인준총회에서 보여주신 교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진지하고도 정아한 자세로 교민속에 있고, 교민과 같이 호흡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출범에 앞서 엄숙히 약속드리는바 입니다.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향후 2년동안 저회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한인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교민 한분 한분의 의사는 반드시 경청되고, 이것이 한인회를 운영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준시 저회에게 부어 주신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이 기우려 주시고, 저회가 소심과 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려합니다. 교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즐거운 성탄과 아울러 희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1982년11월30일

회 장 장순채

부회장 이기훈

부회장 변의섭

근배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초겨울…毒感극성

日較差 8~10度…患者 평소의 2배

肺炎등 合併症 조심을

초겨울 독감이 극성이다.

이번감기는 평균 8~10도의 일교차로인해 전국적으로 번지고있는 환절기성감기나 목이아프게 특징인데 특히 아파트지역의경우 단속적인 난방때문에 평소의 50%가 늘어난 하루70~80명의 어린이가 입원병원을 찾을 정도로 환자가 늘고있다. 서울의 한 국민학교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1가량이 콧물을 흘리며 목이붓는등 감기에걸려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할만큼 약을먹어도 잘낫지 않고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이번감기에 대해 바이러스에의한유행성독감은 아니라고 밝히고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감기이환으로 인한 병발증세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파트주민들은 온도, 습도및 환기조절에 조심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江東區 暑室1洞 J국교 양호교사 金蓮字씨(29·여)에 의하면 최근 학교에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려했으나 전교생의 3분의1가량이 감기에 걸렸다며 예방주사접종을 기피하는 바람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慶熙의료원 徐恒祚교수(47·내과)는『이번감기는 단순한 환절기감기』라며『평소 위생에 유의하면서 충분한 수면과 칼로리를 취해 건강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徐교수는 초기에 치료를 받지못할 경우 폐렴·기관지염·중이염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립보건의료원의 한 의사도『저항력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능한 한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朴榮基기자】

痲醉 쇼크死…醫院長 영장

醫師행세한 病理士수배

임신中絶주사…한때 도망했다 自首

대동의원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9일 서울鍾路區昌信洞 대동의원 원장 金在汝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병원 병리사 林在圭씨(42)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원장 金씨는 지난26일 하오7시께 자신이 병원을 비운사이 白모양(22·서울城北區東小門洞)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러오자 간호원尹用子양(26)에게 마취주사를 놓을것을 외부에서 전화로지시했는데 주사를맞은 白양이 쇼크로 숨졌다는 것. 또 병리사 林씨는 의사자격도없이 의료행위를했다는것이다.

원장金씨등은 白양이 숨진사실을 이날하오11시께 가족들에게 알린뒤 「휴진」 푯말을 내걸고 사무장만남긴채모두 자취를감춰 입원환자8명이 진료를 받지못해 다른병원으로 옮기는등 소동을빚었으며 원장金씨는 28일하오경찰에 자수했다.

金鉉奬·文富軾피고 抗訴審도 死刑선고

美文化院 방화事件

【大邱】大邱고검 공안부 김영준검사는 29일하오 대구고법제1형사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대한 항소심결심공판에서 金鉉奬·文富軾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등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1심구형량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16명가운데 검찰에 항소하지 않은 金鉉奬 文富軾피고인등 11명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주장하고 1심선고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한 5명의 피고인중 金志禧 柳承烈 崔貫純피고인에게는 1심대로 무기징역을, 文吉煥 李昌馥피고인에게는 징역4년에서 3년까지와 자격정지 4년에서 3년까지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선고량)

▲金鉉奬(32·무직)=사형(징-징역, 자-자격정지) ▲文富軾(23·高神大4년 제적)=사형(사형) ▲金恩淑(23·〃)=무기(무기) ▲柳承烈(22·釜山大3년)=무기(징·자15년) ▲朴顧植(19·高神大2년)=징·자10년(징·자7년) ▲崔忠彦(19·〃)=징10년(징·자7년~5년) ▲李美玉(22·〃)=무기(무기) ▲崔貫純(20·釜山大3년)=무기(징·자15년) ▲金志禧(21·釜山女大3년)=무기(징·자15년) ▲金華石(22·서점상)=징·자5년(징·자3년) ▲許珍洙(24·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청년회부회장)=징·자5년(징·자3년) ▲朴貞美(22·〃)=징7년(징·자4년) ▲崔基植(39·신부)=징5년(징·자3년) ▲文吉煥(36·성당관리인)=징4년 자4년(집행유예3년) ▲李昌馥(43·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회계)=징3년 자3년(징·자2년 집행유예3년)

국교생등 18명 다쳐

光州 학교正門옆 담장 무너져

【光州】29일 상오 8시15분께 전남光州市西區良1洞2 양동국교 정문옆 도로변의 높이1.5m, 길이38m의 벽돌담장이 무너져 등교길에 이곳을 지나던 양동국교 6년1반 朴鍾大군(12)등 학생 15명과 행인 朴英任씨(39·여·光州市西區良3洞375의2)등 3명, 모두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새벽부터 光州지방에 내린비로 이일대의 빗물이 밀려드는바람에 담장이 무너져 발생한것.【影】

現代건설 쿠웨이트 道路공사장

숙소에 불…7명死亡

現代건설 쿠웨이트 도로공사장 현장숙소에서 불이나 잠자던 인부 7명이 가스에 질식,숨졌다고 29일 現代건설 본사가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26일상오7시30분께(현지시간 26일상오1시)쿠웨이트시「자리아스크리프」지구 現代건설 K6 도로공사장 현장숙소D동 막사9호에서 불이나 잠자던 宋昌邱씨(42·중장비사·서울江東區馬川洞125 연립주택1의204)등 7명이 유독가스에 질식,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숨진인부 7명가운데 金炳良씨(…·불록공·서울永登浦區新吉3洞285의4)▲朴鎭植씨(43·중장비기사·서울城北區鍾岩洞3의290)▲孫翼魯씨(27·목공·경북浦項市德壽洞50의10)등 3명의 유해는 28일밤 KAL기편으로돌아왔고 宋씨등 4명의 유해는 오는1일 귀국할예정이다.

◇사망자명단

▲宋昌植▲全炳良▲朴鎭植▲孫翼魯▲柳正權(30·콘크리트공·전북完州郡九耳面의 岷里)▲高永伯(29·중장비기사·부산南區水營洞10의8)▲徐相珍(27·목공·서울江東區吉洞173의1)

가뭄끝에 겨울비

順天 최고 133mm

【地方綜合】오랜 가뭄끝에 지난 28일 하오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29일 하오 경북지방을 제외하고는 평균 5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여 각종 겨울 가뭄과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비는 전남順天지방이 133.5mm를 최고로 충남지방도 내평균 73.1mm가장 많이 내렸고▲전남 69.1mm▲전북 59.4mm▲제주 54.9mm▲경남 53.9mm▲경기 50.2mm▲강원 46.9mm▲경북 26.3mm의 강우량을 각각 나타냈다.

柳在承씨—쇼케孃 중세騎士風결혼식

"나는 火星人…神의각본 의한것" 話題

◇중세기사의 모습으로 식장에선 신랑 柳在承씨。쇼케양은 전형적인 프랑스신부 차림이었다。

【파리支社】지난27일 하오3시 프랑스 중부 트레토마을에서 올려진 한국인 柳在承씨(32)와 80년도 미스프랑스 쇼케양(26)의 결혼식은 신랑이 중세기사차림에 긴칼까지 차고 식장에 섬으로써 또한번 화제가 됐다.

이날 柳씨가 차고 나온 칼은 지난9월 쇼케양과 함께 파리근교 나폴레옹묘지를 찾았을때 그곳 기념품 가게에서 쇼케양이 사서 柳씨에게 선물했던것.

또 柳씨는 결혼식장에서 『나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러온 우주인이다. 쇼케와의 결혼도 신의 각본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했는가하면 자신이 우주인이란것은 UFO의 신비가 벗겨지는 날 증명될것』이라고 이해할수없는 말도 했다.

한편 신부 쇼케양은 『장차 계획보다 당장 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가 급선무』라고여자다운반응을보였다.

李弘秀理事 社友葬

한국일보 李弘秀이사(광고담당)의 영결식이 28일상오 9시30분 한국일보 張康在회장, 洪惟善, 申英秀부회장등 사우와 金炳華, 張德鎭, 尹錫民씨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사우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이 끝난뒤 고인의 유해는 충남 瑞山선영으로 옮겨져 안장됐다.

日人 입건

美貨 7만弗 밀반출기도

김포세관은 29일 일본인 스다·마사아끼(須田昌明)씨(48·도오꾜거주)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적발, 강서경찰서에 이첩했다.

세관에 따르면 스다씨는 이날정오께 가방속에 1백달러짜리 미화7백장을 1백장씩다발로 묶어넣고 공항출국수속장에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세관측은 스다씨가 특정 화주의 부탁을받고 이돈을 운반하려한것으로 보고 수사를펴고있다.

朴尙恩양사건 다시 原點에

鄭載巴군 3百9日만에 保釋…부모품에

檢察 한때 陣痛…抗告 포기

◇검찰의 항고포기로 서울永登浦교도소에서 석방되는 鄭載巴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이어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았던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 행정학과3년)이 29일하오 검찰이 법원의 보석결정에대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구속(82년1월24일)된지 3백9일만에 석방,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朴양피살사건은 발생(81년9월18일) 1년2개월여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사실상 영구미제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현단계로는 이사건이 채증법칙의위배등을이유로 역전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金炳燉검사는 지난26일 朴양피살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鍾九부장판사)가 鄭피고인에대해 보석허가결정을내린후 법정항고기간 (3일) 마감일인29일하오3시『본안사건에대해서만 이미상고한대로 대법원에서 철저히다루기로하고 신병문제에 대해서는법적인 문제를검토한결과 다투지않기로했다』고 검찰의항고 포기이유를밝혔다.

이어 검찰의 항고포기의사가 鄭피고인의 변호인단에통보됐고 변호인단이 보석금3백만원을 납부한직후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발부됐으며 이에따라 鄭피고인은 이날하오 5시45분 그동안 수감돼있던 永登浦교도소에서 풀려났다.

鄭피고인의 주거는 법원의 보석결정문제에 따라 서울江南區驛三洞633의5 자택으로 제한된다.

한편 鄭피고인에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을 놓고 검찰은 대법원에의 항고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법정기간인 3일내내 관계자간의 구수회의를 계속열며 진통의시간을 보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대해 1·2심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던 검찰로서는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기소한 살인사건의 피고를 풀어주는데 동의하면 사건자체를 잘못 기소했다는 것을 자인하는것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고하면서까지 계속 붙잡아두려는것은 감정적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을여지가 있다』는 우려사이에서 상당한 고심을 해온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항고포기를한다면 尹노과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때처럼 법원에서 보석을통보받은 날인 지난26일 즉각했을텐데 주말을 넘기게되자 검찰이 끝내 항고할것으로 예상하기도했다.

결국 검찰은 朴양사건과 보석은 별개의문제라는 태도를취해 鄭피고인을 풀어주는데 동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한것으로 보인다.

朴양사건은 당초 경찰이 朴양의 해외연수동기생인 張모군을 용의자로 검거, 치혼을 증거로 검찰에 구속지휘품신을 냈다가 검찰이 영장신청을 보류함으로써 한때 물의를 빚었는데 그후 검찰이 직접수사에나서 鄭피고인을 2차로 진범으로 단정, 구속기소했었다.

그러나 계속된 법원의 무죄선고및 보석결정으로 鄭군이 풀려남으로써 朴양피살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것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진범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지 않을수가 없게됐다.

◇朴尙恩양 사건日誌

▲81·9·21	朴尙恩양 피살체 발견
▲〃·10·5	경찰, 용의자 張慶秀군을 치흔을 증거로 검찰에구속, 지휘품선
▲〃·10·6	검찰, 張군 영장신청 유보조치
▲〃 10·28	경찰, 張군을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송치
▲〃 11·25	담당검사 金基駿검사에서 趙炳吉검사로 교체
▲〃 12·25	검찰, 鄭載巴군 소환조사
▲82 1·24	鄭군을 살인, 사체유기혐의로 구속
▲〃 2·12	鄭군 기소
▲〃 6·21	검찰, 무기징역구형
▲〃 7·9	1심서 무죄선고 검찰 즉시항소
▲〃 10·30	검찰1,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11·21	2심서도 무죄선고
▲〃 11·23	鄭군 보석신청
▲〃 11·26	법원보석 허가
▲〃 11·29	검찰, 법원의보석결정에 대한 항고포기。鄭군 석방

건강한 모습에 함박웃음

이날하오5시45분서울永登浦구치소에서풀려난鄭군은구치소앞에서 기다리고있던 가족과 친지에게 안겨 「해방의 기쁨」을 나눴다.

약간 수척했으나 건강한모습으로 웃음을띤 鄭군은 대기하고있던 승용차편으로 서울江南區 驛三洞738의2 집으로가 친척10여명과 해외연수동기생등 친구들을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李乙淑씨(44)는 하오3시30분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을받은뒤 새로도배한 2층鄭군방에 책상과 옷장등 가구를 새로 들여놓았다. 아버지 鄭民憲씨(51)는 지난25일 마닐라로 회사관계일로 출장중인데 27일아침 전화가 걸려왔고 鄭씨회사에서는 載巴군이 나오자마자 鄭씨에게 텔렉스를 쳐주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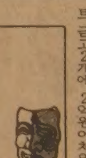
어머니 李씨는 보석허가가 난날부터 밥도 먹지못했다며 『이제야 나오게 돼 억울하다』『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하며 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지었다.

李씨는 또 아들을위해 강남성모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실을 미리 예약해놓기도했다.

「大盜」

유명人士 전문털이 趙世衡

직접 보석 細工까지… 제값받고 팔아



단 한차례 훔친 귀금속이 3억8천만원어치。5·6캐럿 물방울다이어, 12캐럿 사파이어, 10캐럿 캣스아이, 6·3캐럿 에머럴드, 3캐럿 루비 20개, 칼채, 화텍스, 롤렉스 금장시계등등。해외토픽의도둑얘기도 아니고 유명보석상이 털린 것도 아니다.

지난27일 경찰에 붙잡힌 「大盜」 趙世衡(38·사진)이 지난10월어느 유명인사의 집을 털어 올린「실적」이다.

趙는 반년동안 단6차례 범행에 5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털었다。그를 붙잡은 경찰관들조차 그의 아파트 금고2개에 2억원어치의 귀금속이 가득찬 것을 보고 『전국이래 가장 큰 왕도둑』이라고 혀를 내둘렀다는것.

趙에게 「大盜」란 칭호가 붙여진 것은 유독 유명인사들의 집만을 범행대상으로 골랐기 때문인듯。재벌그룹회장·재벌의사위인 종합병원장, 현직국회의원등등…。알려진것보다 훨씬 「굵직한」 유명인사의 집도있고 피해액이 20억원이 넘는다는 「풍문」도 있다.

趙는지난3월 생애통산 11번째로 상습 특수절도죄로 7년형을 복역하고 출감한 직후부터 매월한차례씩 惠化洞·梨花洞·明倫洞·奬忠洞·西橋洞등의 호화주택을 귀신같이털어왔다.

그는 범죄세계의 은어로 「도꼬다인」로 불리는 단독범행이 특징。때로 드라이버와 작은 쇠막대(빠루)만 쥐고 대개 경비원한돌씩은 있는 집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아무리 단단히 숨겨논 보석도 귀신같이 찾아내 「큰도둑」 답게 훔기를 지니거나 사람을 해친일이 없다.

집에 보석세공기와 저울·세공도구까지 갖추고 손수 모양을 바꿔 시중에 제값을 받고 내다 팔아온것도 그의 놀라운 솜씨의 하나。

趙가 任春三·金福萬등 흉러간 「도둑王」들과 다른점은 「義賊」흉내를 내려 했다는 확인할길없는 소문에 있는지 모른다。구두닦이들과 노점상들에게 수십만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다는얘기가 경찰서주변에까지 나돌던그는 남다른 「神話」를남기고 싶어서였을까。

철창에 갇힌 趙는 굳게 입을다물고 있어 고향이 황해도鳳山이고 고아출신이란것외에는 그의 신변과 행각은 자세히 알길이 없다。

『이제는 다시 나오기 힘들겠군요』란 말만 남기고 철창속으로 들어갔다는 그가 이번만큼은 개과천선해야 되지않을까。【姜秉泰기자】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연합 찬양예배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아래와 같이 시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각 교회 성가대가 순서에 따라 성탄송을 부르는 시간을 마련하였읍니다. 다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2일(일) 저녁7시
장 소 : 제일장로교회
주 소 : 68 Collinson blvd Downsview
설교자 : 김재광목사(영락교회)
주 최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회장 안병한목사
주 관 : 한인침례교회 담임 홍신웅목사

매일 매일 우편함 속에서
고국의 소식과 생활의 안내가
담뿍 담겨진 한국일보를 꺼내는
기분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큐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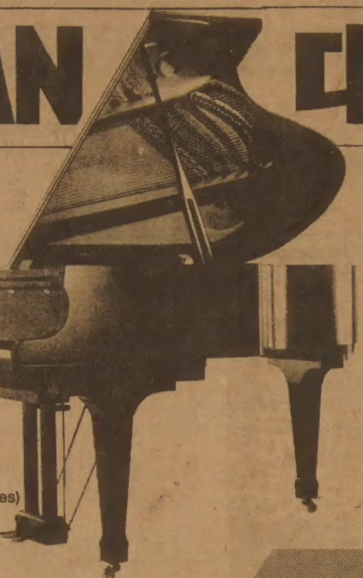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5 GORDON BAKER RD.

498-1300, 496-2196

MACHO레스토랑 이 해 창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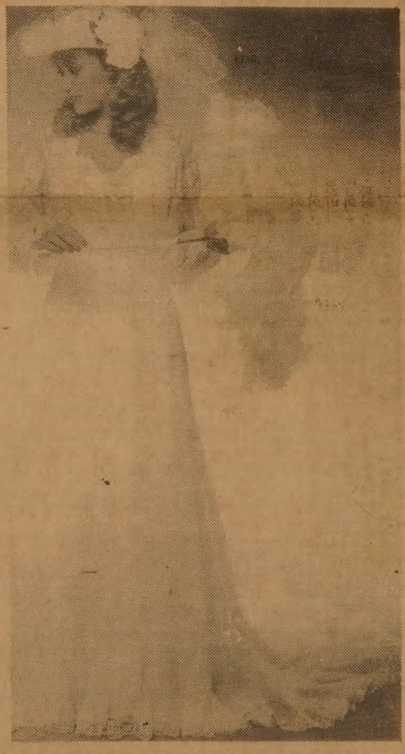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hton
☎ : 485-9419 488-0639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급구 · 여자 웨이츄레스와 주방헬퍼 구합니다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맥주 1병 · 1불25전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 9018, 366 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안전식 유해물질·온타리오 정부 공인,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 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등···
영업시간: 수~토-5:30pm~11pm 일-5:30pm~10pm
5304 Yonge St.(at Finch)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 2120 [illegible]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SHERATON HOTEL
123 Queen St. W.
전화: 366-1188(R) 928-3335 김현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더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illegible] 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illegible]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이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서양식 겸한 요리사 구함.
전화: 496-2196(6시 이후 연락바람)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탁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않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칭(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4,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7,200. 1,200 sq.Ft. 렌트: $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l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없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St. Catharines.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컴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 (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개업1주년기념

SKI SPECIAL

ALL SKI 25%~30% OFF

● 겨울은 브렌든스포츠와 함께

● 즐겁고 ● 건강하게

KNEISSLE
DOWN HILL SKI PAKAGE

SALE PRICE

DYNASTAR	SKI	$290 ~ 420
HEAD	SKI	$150 ~ 220

NORVINCA BOOTS

TYROLIA BINDING

LOOK 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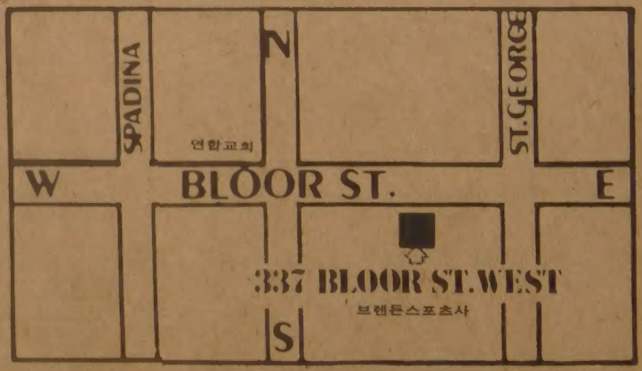
COUNTRY SKI SALE PRICE

SKI
BOOTS
BINDING
POLE

59.99 99.99

HOT WAX 10.00

NEW SKI GLOVES 30% OFF
SKI TUNE·UP FREE



브렌든 스포츠

337 BLOOR ST.W. TORONTO <연합교회 건너편> T,598-3732

GRAPHIC ARTIST BonMoo Koo